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9호 2011년 9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1225 W. 190th.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usa@yahoo.com



남가주 동창회 제6회 Family Camping Day

Bishop관광지에서 추억만들기

등산팀·관광팀·사진팀·철벽지팀 등 활동
2박 3일간 대자연의 정취에 흠뻑 빠져

남가주 총동창회가 Labor Day 연휴를 맞아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Bishop지역 Milpond Recreation Area의 Picnic Gazebo에서 2박3일간의 가족 캠핑데이 행사를 가졌다.

첫날인 9월 3일 각자 행사장으로 모여든 동문 가족들은 남가주 치대 동창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BBQ 파티 식사로 행사를 시작했다.

식사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자 한중철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다시금 동문들을 모시게 돼 기쁘기 그 지없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김창신 총무국장의 보조로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의 동문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관광팀은 Mono Lake와 Mammoth에서 Gondola를 타기도 하는 등 주변 정취에 흠뻑 하루를 즐겼다.

소개해나갔다.

이어 등산담당 캠핑 위원장 김동근 동문이 다음 날인 4일의 산행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주의 사항을 일러주었으며 관광에 대한 안내도 계속됐다.

저녁에는 동문 가족들이 Camping 장에 있는 텐트 앞에 모여 저마다 준비해온 Wine와 Whisky로 오랫동안 만난 정담을 나누면서 한 여름 밤 관광에서의 정취를 만끽했다.

이튿날 아침 각 조별로 나누어서 산행과 관광을 실시했다. 산행 A팀은 왕복 12 mile 코스인 South Lake Trailhead에서 Bishop Pass까지 다녀왔다. 다음은 임원진과 함께 행사를 진행한 김창신 총무국장의 글이다.

‘Elevation gain은 2,400ft 정도였고, 마지막 Switchback가파른 돌길을 올라가서 아직 녹지 않은, 아니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은 눈을 밟고 Bishop Pass에 도착했다.

바람이 부는 상쾌한 정상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13명이 출발해서 11명이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산행 B 팀은 Chocolate Lakes loop를 돌아와 왕복 8 mile의 코스를 완주했다.

철벽지 팀은 Mammoth Lake에서 출발하여 Gondola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간 후 다시 Bike를 타고 위험한 산세를 끼고 Trail로 내려와 전원이 모두 평소에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하였다.

관광팀은 Mono lake에서 조용하고 깨끗한 호수의 전경을 즐기고, Mammoth Lake에 가서 Gondola를 타고, 명품 Outlet에 가서 Shopping을 한 후 Casino에 들렀다가 저녁 식사 시간에 돌아왔다.

오후 조 전 총동창회장이 이끄는 사진팀도 지역 촬영을 다녀왔다.

둘쨋날 저녁 식사는 공과대학 동창회에서 역시 푸짐한 BBQ를 준비해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장기자랑에서 흥광식 동문이 Summer Time을 불러주었고, 홀수와 짝수 학번으로 팀을 구성해 줄다리기를 하며 흥을 즐겼다.

어두워져 공식행사는 마치고 Camping장 텐트 앞 테이블에서 일명 ‘25시 Cafe’를 열어 동문들이 모여 앉아 Wine와 맥주를 마시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면서,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만끽했다.

실로 경관이 수려한 Bishop에서 2박3일의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다녀왔다.

다시 한번 더 저녁식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치대와 공대 동창회에 감사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신 김동근 가족 캠핑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 화보 및 기사 16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영국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QS) 평가

서울대 세계 42위, 약계평가는 33위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지난 8월 4일 밝힌 ‘2011년 세계대학 평가’에서 모교 서울대가 세계 42위에 랭크됐다.

카이스트는 90위, 포스텍 98위, 연세대 129위, 고려대가 190위에 각각 올랐다.

글로벌 대학 순위는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지난 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하버드대(미국), 3위 MIT(미국), 4위 예일대(미국), 5위 옥스퍼드대(영국)의 순이었다.

세계 100위 안에 든 한국 대학은 2007년 서울대 1곳에서 2008년 서울대·카이스트 2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포스텍이 새로 진입하면서 2004년 QS가

세계대학평가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위 안에 국내 3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200위 내의 국내 대학 역시 2007년 2곳에서 2008년 3곳, 2009년 4곳, 지난해 5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200위 내의 국내 대학 5곳 중 4곳이 각각 순위를 끌어올렸다.

서울대는 지난해 50위에서 올해 42위로 8계단 상승했으며, 포스텍은 14계단(112→98위), 연세대 13계단(142→129위), 고려대는 1계단(191→190위) 순위가 상승했다.

400위 내 국내 주요 사립대들도 순위가 올라갔다.

<2면에 계속>



2011년도
세계 대학평가

(Q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

2011 2010 대학명

1	1	케임브리지(영)
2	2	하버드(미)
3	5	MIT(미)
4	3	예일(미)
5	6	옥스퍼드(영)
6	7	임피리얼(영)
7	4	UCL(영)
8	8	시카고(미)
9	12	펜실베이니아(미)
10	11	컬럼비아(미)
42	50	서울대(미)
90	79	KAIST(한)
98	112	POSTECH(한)

기획·특집 <9.11 10주년> 동문들이 회상하는 ‘나와 9.11’ / 9.11의 경제적 충격 ...4~5면

종 합

활동·모교소식·만평



한덕수 주미대사

9.11추모 콘서트서 깜짝무대

동문 한덕수 주미대사가 지난 9월 11일 미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9·11 10주년 기념 '평화 콘서트'에 출연해 직접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 한인 동포는 물론 미 주류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이날 9·11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깜짝 공연'을 한 것이다. 9·11 1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DC 한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날 저녁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콘서트를 열었다.

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미국인의 애창곡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과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을 연주하며 장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1부 순서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한국 대사의 특별한 연주가 있겠다"며 한 대사를 무대로 이끌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무대에 오른 한덕수 대사는 1970~80년대 활동한 남성 듀엣 유심초의 '사랑이여'를 직접 클래식 기타를 반주하며 선율에 맞춰 불렀다.

예정에 없던 주미대사의 깜짝 공연에 관객들은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다.

한덕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9·11 테러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콘서트가 끝난 뒤 "원래 주최 측이 연설을 요청했는데, 공연의 취지가 너무 좋아 직접 기타를 치고 노래하기로 했다"며 "이번 연주를 위해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전개되는 평화유지 노력에 어깨를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굳건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연 장소인 케네디 센터는 9·11 당일엔 임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평화 콘서트의 취지를 전해 듣고 공연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싱턴 지역 3개 공항을 총괄하는 메트로폴리탄 공항청의 존 포터 청장이 1만 달러를 후원하는 등 미 주류사회 인사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1면에서 계속>

서울대(42위)는 아시아 내에서 일본 오사카대(45위)와 중국 베이징대(46위)를 앞질렀으나, 홍콩대(22위)·홍콩중문대(37위)·홍콩과기대(40위), 일본 도쿄대(25위)와 교토대(32

위)·싱가포르국립대(28위)보다는 순위가 낮았다.

그러나 평가지표 중 서울대는 학계 평가(Academic Reputation)에서 98.3점을 기록해 세계 33위에 올랐다.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citations per

faculty)에서 80.9점으로 평가된 포스텍은 이 분야 세계 69위였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계 평가, 경희대·성균관대·한양대·중앙대는 국제화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성균관대가 지난해 343위에서

탤런트 김태희 동문

부모님이 제일 좋아할 신부감 1위



미녀 탤런트 겸 영화배우로 잘 알려져 있는 김태희(사진) 동문이 고국에서 추석에 부모님이 제일 좋아할 신부감 1위에 뽑혔다.

이는 음악전문 사이트 몽키3가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추석에 데리고 가면 부모님이 좋아할 최고의 신부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 조사에서 김태희 동문이 총 625명 투표자 중에서 32%(202명)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김태희 동문은 1980년 3월생으로 모교 문리대에서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김태희 동문은 지난 2002년 단편 영화 '신도시인'을 통해 데뷔한 이래 영화와 TV에서 현재 수려한 미모와 이국적인 소양을 겸비한 최고의 여성 스타로 사랑받고 있다.

따라서 재벌가에서도 며느리감으로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톱 스타 중 톱 스타로 평가받고 있다.

응답자들은 "신부감 1순위다", "최고의 미모와 재원", "결혼한다면 평생 공주로 모

시고 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위는 17%의 지지를 얻은 박민영이 차지했다. 김태희 동문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다.

그 뒤는 신세경·박정현·구하라·송혜교가 각각 3~6위를 차지했다.

<머니 투데이 스타뉴스>

시사만평

어느 동문의 즐거운 비명



QS 2011년 세계대학평가 순위

2011	2010	대학명
11	13	스탠퍼드대(미)
12	9	Caltech(미)
13	10	프린스턴대(미)
14	15	미시간대(미)
15	16	코넬대(미)
16	17	존스홉킨스대(미)
17	19	맥길대(캐)
18	18	ETH 취리히(스)
19	14	듀크대(미)
20	22	에든버러대(영)
21	28	UC버클리(미)
22	23	홍콩대(홍)
23	29	토론토대(캐)
24	26	노스웨스턴대(미)
25	24	도쿄대(일)
26	20	호주국립대(호주)
27	21	킹스칼리지 런던(영)
28	31	싱가포르국립대(싱)
29	30	맨체스터대(영)
30	27	브리스톨대(영)

259위로 84계단 올랐으며 경희대가 100계단 상승(345→245)했다. 한양대 40계단(354위→314위), 이화여대 4계단(348→344위), 서강대가 5계단(397→392위) 뛰어올랐다. 부산대는 401~450위권, 인하대 451~500위권, 경북대·중앙대 501~550위권, 전남대·전북대·충남대가 551~600위권에 오르는 등 모두 17곳의 한국 대학이 세계 600위 안에 들었다.

QS의 벤 소터(Sowter) 평가총괄 책임자는 "한국 대학들이 최근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적으로 수준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이 거둔 경제적 성과와 뜨거운 교육열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국내 대학들은 5~6년 전부터 국제화와 연구를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200위 내 대학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54곳이 순위에 오른 미국이었으며, 영국(30곳)·독일(12곳)·네덜란드·일본(각 11곳)·캐나다(9곳) 순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7곳·홍콩 5곳을 포함하면 12곳)이 한국(5곳)보다 200위 내 대학 수가 많았다.

QS측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등장한 새로운 특성화 대학들이 세계 대학평가 순위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QS 어떻게 평가하나

QS 세계대학 평가는 연구·교육·졸업생·국제화 등 4개 분야를 주요 기준으로 한다. 연구 분야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와 '학계평가(40%)'로 이뤄진다.

올해 '학계평가'는 세계 학자 3만3744명에게 "귀하의 학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대학 30곳을 꼽아 달라"고 질문했다.

'졸업생 평판도(10%)'는 세계 기업인 1만6785명에게 '채용을 선호하는 대학'에 대해 질문했다. 학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교수 1인당 학생 수(20%)'로, 국제화는 '외국인 학생 비율(5%)'과 '외국인 교수 비율(5%)'로 평가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김은중(상) 상임고문:방석훈(농)
편집위원: 지인수(상) 편집주간: 이기준
편집위원: 박양중(문) 김재영(농) 나철삼(문)
이종도(공) 김지영(사) 이원영(문) 김성수(문)
김종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김기태(LA) 조동준(LA) 최용원(LA) 한창섭(NY)
백순(DC) 육길원(CH) 이청광(LA) 정홍택(PA)
윤상래(MA) 김창수(NY) 임승패(SF) 장석정(CH)
이석구(NY) 김재환(WA) 정요진(LA)

9월호 차례

- 가을이 오는 소리/ 어르신
- 트윈빌딩이 무너지던 순간/ 태평양
- 상공에서 맞은 9.11/ 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9.11사태의 경제적 충격
- 홍난파 선생 70주기를 기리며
- 마지막처럼/ 아버님의 일생을 생각해봄

니다/ 동문 시 감상(무궁화)

- 8-11. 미주 동문동정
- 와인을 마시는 이유/ 짜장면이 바로 민주주의
- 법정일화<여곡육상쟁>/ 동문 시 감상
- 한민족의 뿌리/ 양환자 가족의 힘
- 세계평화지상탑상<18>지상미술품
- 16-18. 지역 동창회 소식

19. 러시아 방문기<3>몰락한 강대국
20. 베이징 건문록<4>급성장의 뒤안길
21. 대국 USA의 민주정치를 살펴봄/ 광고
22. 고국 동문 동정
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일림
- 24-29.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각 지부 회장단
- 31-32. 광고

기 고

칼럼 · 수필

가을이 오는 소리



김훈묵(사대 58)

필자가 사는 이곳, 휴스턴의 화씨 100도 행진은 계속 되고 있다. 엇그제 잠시 빗방울이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더니 그나마도 그치고, 뜨거운 열풍이 동부를 휘몰아치는 허리케인에 밀려 텍사스의 넓은 벌판을 휘젓는다.

초추(初秋)가 아직은 멀었나 보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필자는 가을이 오는 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듣고 있다. 아마도 시베리아 벌판의 어느 앞은 계곡을 돌아 가을은 매미 소리, 귀뚜라미, 쓰르라미 소리를 앞세우고 군악대의 행진곡을 힘차게 울리며 남으로, 동으로, 진군하고 있으리라.

얼음과 눈이 덮인 알래스카를 건너면서 북소리는 더욱 거세어진다. 일부변경선을 지날 때 알래스카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맞추어 행진곡은 그 폭과 높이를 더하여 캐나다 접경을 뒤흔든다. 단풍이 북아메리카를 도화할 즈음이면 하늘은 드높기만 하다.

음력 7월 9일 입추(立秋)를 지나, 음력으로 7월 스므나흐렛날 처서(處暑)가 지나고 말복(末伏)을 끝으로 삼복(三伏)의 혹서(酷暑)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지나간다. 양력으로 8월 29일이 음력으로 8월 초하루여서 금년 추석은 9월 12일이다.

이젠 지구의 온난화 탓에 절기가 며칠 늦장을 부리는 바람에 금년 추석도 쌀쌀한 맛이 나는 날씨를 맞기는 어려워졌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8.15 해방 기념일이 지나고서는 바닷물에 들어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필자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요즈음은 9월 초순이 되어도 해수의 온도가 견딜만하다고 하니, 지구의 온난화가 그만큼 이 지구를 휘저어 놓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다. 그 술한 사람들이 북아치는 판국이니 해변인들 성할 리 없다.

추석이 되면 갈나무 잎사귀가 울긋불긋 풍경을 그리기 시작한다. 흥시가 발갛게 익어갈 무렵이면 까막치들이 흥시에 매달려 서커스를 벌인다.

밤나무에 밤송이가 싹명나게 웃음을 터뜨리면 갈색 밤 알들이 실없이 후드득거리며 떨어지고 다람쥐들이 두 앞발을 비비며 맑은 눈망울을 반짝인다.

갈잎나무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어 넓은 이파리로 싸늘한 아침공기를 휘저으며 저공비행을

하면 대추나무에는 대추불이 발갛게 불 밝히고 우물가에는 빨간 단풍 잎사귀들이 돌돌돌 흐르는 개울물에 떠서 가을 여행을 떠난다. 이젠 떠나면 곳의 고향이라 불리는 곳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허접한 옛이야기다.

오늘월은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던 계절이라서 아카시아 꿀향기가 온 마을을 휘젓는다면, 구시월은 코스모스의 계절이다. 키 큰 코스모스에 하얗고 빨간 꽃술과 꽃잎들로 코스모스가 힘껏 입을 벌리고 시골길 양쪽 가장자리에 도열한다.

그 함초름한 잎사귀들이 서늘 바람에 머리를 조아리고 설레설레 흔들는 몸짓은 한 여름 땀빛으로 마을 어귀를 빨갛게 달구던 백일홍의 새빨간 꽃에 비하여 어떤지 서리 맞은 청상(靑裳)의 아픔이 묻어나는 듯해 서러운 생각이 든다. 지어미로서 뜨거운 정열을 내 뱉지 못하고, 어미로서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억지로 마감한 구중심처에 갇힌 청상의 아픔을 한(恨)으로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오동나무 잎이 지면 가을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 넓은 잎이 한껏 폼을 보고 싶었던 벽오동(碧梧桐)의 한도 청상의 그것에 비할 수만 있리라. 옛사람들은 벽오동 심은 뜻을 나이 들면 스스로 헤아릴 수 있다고 하였으니, 필자는 언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 하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탓하여 본다.

오동잎이 한잎 한잎 지면 조락의 계절 가을은 아스라한 낙조의 슬픔이 아련히 소매 속으로 숨어든다. 어쩌도 가을은 낙엽으로 해서 서글퍼지기 마련인가 보다. 하늘이 높아지고 왕자처럼 당당하던 숲들이 울긋불긋 병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조락을 맞아 끝없는 애수(哀愁)에 우울하기만 하다. 거기다 만가(輓歌) 속에 상여에 실려 북망산전을 찾는 나그네라도 있다면 하늘이 노랗게 변하도록 마음 아플 것이 아닌가.

따스한 햇살이 아쉬운 만추(晩秋)가 가까워 오면 이제는 다시 그 웃음 띤 표정들을 볼 수 없는 옛 사람들의 얼굴들이 그리워진다.

82살 먹은 큰 누나는 아직도 여섯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도 부부혜로를 하고 있지만 작은 누나는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버려 버렸다.

여섯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내고 공무원 봉급을 쪼개 마련한 집을 80이 넘는 매부와 함께 남겨놓고 몇 년 전에 병환에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몇 년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다.

막내 딸 아이의 유학 뒷바라지점 로스앤젤레스에 잠시 들렀다가에 두 분의 비행기 표를 끊어 평생 못 다해 준 보석이며, 웃이며, 신발이며 생각나

어르신

최용완(공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

‘어르신’은 인생의 절정이다. 사람이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어른’이라 부르고 어른 중에 어른을 ‘어르신’이라고 부른다.

나이 70을 넘어서면서 나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분명히 나의 외모에서 나이를 보고 판단하는 말이지, 마음은 청춘임을 그들은 알 길이 없다.

내 안에 지성·감성·영성이 넘치는 열정이 있고, 진취적이고 경쟁성에 색이 조금도 바라지 않은 저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가끔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그러한 자신감은 착각이었을까’, 하고 나 자신에게 묻기도 한다. 아내는 내게 있는 남성만의 본능을 걱정하며 그것이 몽땅 착각임을 상기시켜준다.

건축 전문분야에서 은퇴하였지만, 지금은 더 바쁘게 지내기에 ‘백수가 과로사 한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후배들이 나의 지나간 삶과 사업에 관하여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하면, 나는 쉽게 이렇게 설명해준다.

“20대까지 배우고, 30대에 실습해서, 40대에 사회 안에 자기의 자리를 잡고, 50대에 뜻을 이루어 젊은 후배들을 가르치고, 60대에 내 자리를 그들에게 넘겨준다. 70대에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더욱더 취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준다.

그리고 인생과 사업 관리에 관하여는 다섯 손가락을 세우면서 이렇게 설명해준다.

는 대로 사드리고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골라 대접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차마 알지 못했다.

가을이 오면 필자는 강원도 평창 태생인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이 생각난다.

그의 ‘낙엽을 태우면서’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기억이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낙엽 타는 냄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가을의 상념들이 그를 문호다운 글쟁이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의 명작 ‘메밀꽃 필 무렵’은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버린 그였지만 더 많은 글을

첫째는, 사람관계로 가족에서 이웃이나 친구 혹은 낯선 사람들까지도 좋은 관계로 지내도록 노력한다.

둘째는, 현명한 돈 관리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안전을 유지한다.

셋째는, 질이 좋은 생활, 질이 좋은 상품, 질이 좋은 서비스를 항상 추구하고 거래한다고 이야기 한다.

넷째는, 네트 워크로 사회와의 연결 끈 마케팅이며 사업가에게는 생명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지막 새끼 손가락,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로 현재의 시간을 가장 유용하게 지내고 항상 미래를 보는 촉각을 세워 계속해서 다가오는 미래를 계획한다고 들려준다.

나이 70 어르신에 이르렀다면 삶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한다. 아이들이 성숙해서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가 재롱부리는 재미를 보며 즐거움을 누린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은퇴재산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나이 들면 운동신경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쉽고 감기 들면 면역력이 약해서 폐렴을 앓기 쉽다고 한다. 아내는 음식에 관심을 쏟고 나는 운동에 관심을 두어 매일 함께 걷는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낮에는 사회봉사에 바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독서와 글쓰기에 바쁘게 지낸다.

친척이나 친구들이 찾아와서 집에 머물러 세상 이야기 나누며 함께 웃고 지내다 가고 나면 우리가 아이들일 때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돌 화롯불에 곱방대 두들기며 ‘세상이 말세’라고 불평하시던 근심을 이제야 이해하기에 이르기도 한다.

우리도 가끔 젊었을 때 바빠서 가보지 못한 외국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우리가 배워 온 세계 역사에 편견이 많았음을 다시 생각하곤 한다.

어르신은 인생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겸손한 기간이기도 하다.

우리 부모는 80대 중반에 고별하셨다. 우리의 시제도 멈추지 않고 그 때를 향하여 초침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예술 작품이다. 그의 예술적인 천재성은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높은 예술의 경지를 개척해 놓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예술품으로서의 단편 소설을 읽고 싶다면 그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으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작은 누나가 보내준 코스모스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했지만 1년이 채 가지 못하고 코스모스는 더위에 아예 녹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중 갈베스턴 무디 가든(Moody Garden)에 한국에서 온 작은 누나를 모시고 구경을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가 태어나는 때가 있고 떠나는 때가 있다. 태어나는 때는 부모가 준비했지만 떠나는 때는 자신이 준비해야 함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

죽음이 두려워서 떠나기 전에 종교를 택하는 친구들을 가끔 본다. 종교는 과학이나 예술처럼 인간만이 갖고 사는 커다란 혜택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활의 한 부분이 되면 삶에 많은 도움을 얻으며 살게 됨을 주위에서 항상 본다.

어르신의 인생 황혼은 슬프고 아름다운 기간이기도 하다. 이루지 못한 꿈은 떠나는 날에도 아쉽고 아름답다.

목숨이 떠나고 나면 사는 동안 인류사회에 보탬이 되는 좋은 성취와 흔적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는 데, 그것이 영생하는 결과가 아닐까 싶다.

동물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매일 먹이를 찾아다니고 짝을 찾아서 떠난 후에 목숨을 이어가도록 새끼를 남기고 간다.

인간은 언어가 형성되면서 종교·예술·과학의 형식이 사회를 이루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나.

목숨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람들을 위해 사람답게 살아왔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잘 달궜던 몸과 마음이 미국에 이민하여 한국인의 뿌리를 깊게 키우며 살아온 듯 하다.

세계화 추세와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살아온 우리의 세대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 다음 세대는 디지털 정보시대로 바뀌어서 지구의 표면은 더욱 축소되고 인류는 더욱 하나의 국가로 가까워지는 듯 하다.

시간이 갈수록 마시는 공기와 물에 오염이 더욱 심해지기에 심각한 공해와 싸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을 시험관 안에서 만들어 우주인이 태어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드디어 모든 인류가 어르신이 되는 때가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캘리포니아에서>

갔다 해변에 그래도 그럴 듯이 한 무더기로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만난 적이 있다.

코스모스도 이 무서운 더위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모양이다. 아마도 종자를 미국 북부에서 채종했을 것이다.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생명이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적응하려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하면 존재를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이런 1세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미국산 코스모스 씨를 얻어다 파종해 볼 작정이다. 그리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기다릴 것이다.

<휴스턴에서>

9.11테러 10주년

나와 9.11

Twin Building이 무너지던 순간



지인수(상대 59)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어느 순간엔들 그 당시 그 모습을 쉽게 잊을 수 있겠는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이른 아침에 긴급 뉴스 속에서 뉴욕의 Twin Building이 Air Plane의 정면 공격을 받아 무너져 내리고 그 치솟는 검은 연기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하던 시민과 Fire fighter & Policeman들, 긴급히 대피하기도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 등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와 동시에 과거 1976년 같이 근무하던 200여 명이 그 빌딩 50층에 있을지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니 그들의 생사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백방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는 너무 이른 아침의 일이라 연락이 되질 않아 더욱 불안하였다.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부시 대통령의 침통한 담화와 함께 눈물이 글썽거리는 모습들이 점철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과거 동료들과 연락이 됐다. 다행히도 이들은 그 전에 이미 Twin Building 50층에서 N.J. Harbor쪽으로 이전해서 그 쪽으로 간 동료들은 다들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안하던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계속 들어오는 속보에는 Washington DC.에서 펜타곤 건물에 공격을 받는 등 점차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 Terror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Terror 전쟁의 후유증으로 오늘 날과 같이 정치·경제력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어 국제적으로 국가 신용이 추락하게 될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나에게, Twin Building에서의 사회생활은 나의 인생과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준 점에서 매우 감회가 깊다.

지난 1971년에 정부 초청 Base로 Business Consultant 연구와 연수 교육을 Pittsburg에서 마치고 다녀간 이후 1976년도에 장기 체류가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 Twin Building 50층 Office에서였기 때문이다.

나의 체류 목적은 국제 Joint Operation Service의 일환으로

한국측 Partner의 Representative로 왔던 것이었다.

양 당사국의 회사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인식해야 했고, 한 회사의 단순 대표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특수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Joint Operation Service였다는 점에서 회사 상호간의 이해득실 등을 어떻게 무리없이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느냐 하는 등 상당히 민감한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보람된 일이기도 했다.

예컨대 World Conference Meeting에서는 한국 회사는 물론 관련 업계의 한국측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적인 면까지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Conference Ship owner's Meeting에서는 내 역할의 몫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때까지만 해도 언제나 힘없는 국가의 소수 의견과 국제 대세에 따라야 하는 Partner의 의견에 동참하여 국제적인 이해득실에 따른 Conflict을 최소화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만 했다.

30대 후반에 국제 Conference에서 한국측 경제 상황을 내거 몸 담고 있던 업종과 관련해 대변해야 하는 일 등 궁지를 가지면서도 민감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었다.

또한 미국 철도에 의한 물류 시스템 연구하기 위해서 후배 연수생을 파견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었다.

그 해가 마침 미국 독립기념 200주년 되는 1976년도였기 때문에 Manhattan에서 Parade가 진행되었고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타난 우리 한국 동포들의 행렬은 나에게 '조국'이라는 것과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새삼스럽게 해서 그 행렬을 쫓아 같이 행진하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일과를 끝내고 44층에 있는 Stand Bar에서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서있었던 '자유와 여성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금융 자본과 세계 무역의 중심지인 이곳 New York Manhattan에 우뚝 서 있는 Twin Building에서 한국 경제가 놓여 있던 위치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열변과 토론을 벌이던 일이 새삼 기억에 남는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느꼈던 Twin Building에 대한 감회는 건물과 함께 이미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국제금융 질서를 위해서 세워지는 New Town과 New Trade-Financial Center에서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맡기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若水>

태평양 상공에서 맞은 9.11



김재영(농대 62)
미주 총동창회 감사

지난 2001년 9월 11일 새벽 2시경 서울발 미국행 KAL 기내 흥미한 조명 아래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이 때 기장이 "사정에 의해 부득이 서울로 회항합니다" 하는 짧은 기내 방송에 모두들 어리둥절해 있었다.

갑자기 '서울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기장의 방송에 '비행기에 심각한 고장이라도 나서 혹시라도 태평양에 수장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치자 순간 공포감으로 머리가 쭈뼛해지는 것이었다. 이 같은 느낌은 당시 나 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스튜어디스에게 "웬

일인가?" 하고 물을 수 밖에 없었다.

그녀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New York의 World Trade Center가 의도적인 비행기 충돌로 무너져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기에 미국 진압이 거부됐고 날짜 변경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되돌아가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가까운 친구 몇가쪽이 8월 말 중국 관광을 마치고 서울에 잠깐 들렀다가 안 사람은 예정된 일이 있어 먼저 오고 나만 며칠 더 묵었다가 오는 길에 이 같은 변(?)을 만난 것이었다.

새벽 5시 경에 인천 공항에 다시 내리게 되니 나 자신 무척 난감해져 쓴 웃음만 나왔다. 도착후 매 시간마다 항공사에 비행기 스케줄을 묻는 일이 반복됐는데 오후 2시가 되면 "내일 다시 전화를 해보라"는 대답만 되풀이될 뿐이었다.

YTN에서는 뉴욕 쌍둥이 빌딩이 시차를 두고 공격을 받아 처참하게 무너져내리는 광경을 보여주었고 또 보여주었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백을 놓듯이 보고 있다가 오후 2시가 넘으면 시내에 나가 어슬렁 거리는 것

이 며칠간의 일정이었다.

오래 전이지만 미국은 600명을 탑승시킬 수 있는 대형 여객기를 계획했다가 보험에 들 수 없어 포기했다고 한다. 항공기 납치범들은 대형 비행기 일수록 더욱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이, 마치 건장한 청년이 안방에서 말벌에 쏘이듯 한 줌 밖에 안되는 집단에 의해 미 역사상 가장 처참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크고 강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우리보다 조금 먼저 떠난 비행기는 Canada로 향할 수 밖에 없어(날짜 변경선을 넘었기에)며칠간 그곳에 묵은 승객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오는데 큰 고생을 했다 한다.

이같은 크고 작은 기사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중대 사건이었기에 내가 겪은 불편한 정도는 축에도 끼지 못할 것이다.

같이 중국을 여행한 뒤 도중에 서울로 회항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올 때도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된 Dr. Lee를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또 만나게 됐네요." "참 기연입니다." Dr. Lee와 나만이 추가로 갖게 된 추억이다.

“끝내 그들은 아무도 소지 않았다”

할리 문(USC 치대 교수)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세미나를 위해 아파트에서 10분 거리의 학교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외에 미국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타고 계셨다.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할머니가 중얼중얼 하신다.

"They are so bad..., They are so mean..., How can they do that..., 쫓쫓쫓..."

할머니가 무슨 섭섭한 일이 있는가보다, 하고 내려 교정과 실로 향했다. 교정과 레지던트 3년차 때의 일이다.

1999년 교정과 Residency를 위해 뉴저지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UMDNJ)에 갔다.

2002년 5월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해를 마무리 중이었다.. UMDNJ는 뉴욕 Holland Tunnel을 건너 Newark에 있어서 학교 유리창을 통해 아름다운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훤히 보인다.

교정과실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누군가 Hijack된 비행기가 월드트레이드센터 노스 타워로 날아 들어갔다고 한다. 몇몇은 가족 중 누군가 비행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비행기가 때릴 그 자리가 사무실이라고 엉엉 울면서 가방을 챙겨들고 뛰쳐나간다.

인터넷을 보니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장면이 보인다. 꿈인가 보다. 뉴욕쪽을 향한 유리창가로 달려가 내다봤다.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다. 사실이다! 비행기가 노스 타워에 부딪혔을 때가 내가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길어가고 있을 때였다 보다. 그제야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말이 이해됐다.

혼란 속에 유리창과 컴퓨터를 번갈아 보던 중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와 사우스 타워에 충돌함과 동시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보였다.

"Oh my God!" 창가로 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데 얼마후 사우스 타워가 폭삭 무너졌다. 연기가 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정말 눈앞에서 가라앉듯이 주저앉았다. 가족이나 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울며불며 달려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 노스 타워마저 눈앞에서 사라졌다.

순식간에 PA 시스템을 통해 치과병원 환자 예약을 취소하고 돌려 보내라는 말이 들렸다. 뉴욕에서 SOS가 들어온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을 구조하려던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살아났을 경우 뉴욕 병원들에 입원시킬 병상이 모자랄 것을 예상하고 New Jersey, Connecticut, Pennsylvania 의대와 치대에 병상을 최대한 대기시키고 의료진 모두 응급치료에 대비해 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강 건너 New Jersey가 New York에서 가장 가까워 우리 학교로 제일 먼저 위급한 환자들을 데려올 것이었다. 이

를 대비해 병원에서는 현재 입원 환자 중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다 퇴원시키고 치과병원을 포함한 병원내 모든 침대를 대기시키고 주차장에 텐트까지 쳤다. 뒤송송한 분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환자맞을 준비를 하고 대기에 들어갔다. 한 시간, 그리고 두 시간이 지나고...

참담했다. 충격으로 모두들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해가 넘어갈 무렵 병원 측에서 모두 집에 가 전화를 앞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로 돌아왔다.

뉴스에서는 사고 현장을 Live로 보여주고 있었다. TV 화면에 보이는 광경이 아파트 창을 통해 보이는 광경과 똑같다. TV 화면은 무슨 영화를 보는 착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유리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실제의 일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TV와 창문 밖을 계속해서 번갈아 바라보았다.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희박해졌다. 일주일 내내 뉴욕 하늘은 시커멓다. 불에 탄 재가 뉴저지까지 날아와 길거리와 차 위에 쌓였다. 그러다 주말에 비가 억수로 내렸다. 하늘도 너무 슬퍼 눈물을 펄펄 쏟는 것 같았다.

주말 동안 하늘이 옅고 나니 뉴욕 하늘에 시커먼 연기가 걸히기는 했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쌍둥이 빌딩이 안 보였다. 매일마다 유리창 밖을 내다보면 우뚝 서 있었던 두 빌딩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저기가 뉴욕이던가 싶었다.

9.11테러 10주년

9.11과 미국경제

9.11사태의 경제적 충격



김창수(약대 64, 경대원 68)
CPA·MBA·동향회보 논설위원

인류 역사상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대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그때 당신은 어디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 당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9.11 테러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던져질 정도로, 알 카에다의 오사마 빈 라덴이 계획해서 수행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폭파는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흔적을 남긴 것이다.

▶인류 역사의 큰 흔적=

한 두 달 후부터는 매 주말마다 곳곳에서 거의 시신없는 장례식이 이어졌다. 심란하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 다음해 여름, Residency를 마치고 침울했던 뉴욕을 뒤로하고 LA로 돌아왔다. 그리고 2007년 여름, 6년 만에 다시 뉴욕에 갔다.

Ground Zero에 가 봤다. 내가 마지막 봤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는 너무나 달랐다. 올라다보면 하늘을 찌를 듯한 뉴욕의 상징이었던 빌딩이 있던 곳이다. 언제나 교통 혼잡이 심하고 복잡거렸던 거리였다. 기차에서 내리는 친구를 시간 맞춰 픽업하려고 그 복잡한 돌레를 10분도 넘게 빙빙 돌았던 곳이다. 그리고 70년 대부터 2001년까지 수많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쌍둥이 빌딩이 아직도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이제 벌써 10년이 지났다. 노스 타워와 사우스 타워가 있던 자리에 9.11 Memorial이 지어졌다. 각각 1에이커 만한 폭포 돌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졌다. 비참했던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또 사실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9.11 Memorial Museum도 짓는다. 더 이상 Ground Zero가 아닌 새로운 뉴욕의 상징이 될 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내년 완공된다.

10주년을 맞아 오랫동안 막혔던 그곳에 다시 인파가 모여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제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희망차고 활기차게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월리 문은 문인일(공대51)등문 자녀임>

지금부터 10년 전 9월 11일 아침, 필자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필자의 공인회계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오전 일과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 당시 중국인 여직원의 남자 친구가 MTA(교통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나자마자 자기의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들었다.

“비행기 한 대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부딪혀서 불길이 솟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곧바로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다. 우리 사무실에선 민간 항공기가 고장이 나서 그런 사고가 난 줄로 생각했다.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필자가 그 전 10년간 근무했던 뉴욕주 재무성의 세무감사국 동료 10여 명과 여자 타이피스트, 그리고 필자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주세무감사국으로 자리를 옮겼던 동포 회계사 한 사람도 그 때 3천 명이 넘는 희생자 속에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적 측면= 9.11 사태 발생 10주년을 맞이하여, 필자는 9.11 테러 사건이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 중에서 경제적 측면만을 간추려서 본 <특집>의 한 면을 채우고자 한다.

우선 피해를 본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 인근 빌딩들의 보험 커버액은 40억 달러였다. 일부 부서진 국방성(펜타곤) 빌딩의 수리비가 10억 달러였다. 그리고 그날 비행기 4대가 폭파되었는데, 한 대 값이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수준이었다. 이상이 9.11 테러 사건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액이었다.

그 다음으로, 희생된 사람의 수가 3천 명이 넘었는데, 이들의 평균연령을 40세로 평균수명을 75세로 보고, 연간 봉급과 부대 혜택을 7만 5천 달러로 보았을 때, 사망자의 한 사람당 인력 손실액이 평생 동안 170만 달러로 집계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50억 달러 이상의 인적자원이 사라진 셈이다.

이상의 직접 손실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장래의 수입 감소가 만만치 않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새로운 장소에 안착할 때까지 놓쳐버린 이익 창출액이 1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보험업계가 지급해야 할 보험 커버액이 250억 내지 30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각 분야로 파급= 9.11 사태의 경제적 피해는 정부와 각종 산업 쪽으로 파급되었다. 최고의 피해자인 뉴욕시는 9.11 사태 이후 3개월 동안 43만 명의 실직자가 생겨났고 28억 달러의 봉급이 없어졌다. 그래서 뉴욕시의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3개월과 2002년 한 해 동안 272억 달러가 감소하였다.

그 대신 뉴욕시의 즉각적인 경제 재건과 사회 간접자본 구축을 위해 연방 정부에서 2001년 9월

에 112억 달러, 2002년 초에 105억 달러를 지원해 주어서, 뉴욕시의 파산을 막았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위치했던 로우어 맨해튼(Lower Manhattan)에서는 1만 8천여 개의 영세 사업체가 파괴되거나 폐업을 했다. 그래서 연방 소기업청에서 이들에 대한 용자를 수월하게 하였고, 연방 정부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난피해 복구를 위한 보조와 용자를 마련해주었다.

비즈니스 쪽에서는 보험업계가 최대 피해자였다. 재산피해 커버액이 96억 달러, 비즈니스 손해보전액이 110억 달러, 책임보험액이 75억 달러, 종업원 상해보험액이 18억 달러, 기타 25억 달러로 전체로는 325억 달러에 이른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가 파산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테러에 의한 손해배상을 커버하는 보험회사가 많이 줄어들었고, 남아 있는 회사마저 커버액을 줄이면서 보험료를 많이 인상하였다.

그런데 일반 보험회사는 재보험(Reinsurance)을 통해서 보험금을 다시 커버받으므로, 진짜 손해는 재보험회사에서 보게 됐다.

세계 최대의 재보험회사는 독일의 Munich Re와 스위스의 Swiss Re인데, 9.11 사태로 보험금 지불액이 각각 120억 프랑과 83억 프랑이라고 telegraph.co.uk가 예측하였다. 샌프란시스코 크리니컬에서는 Munich Re가 150억 달러, 프랑스의 AXA Group이 55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

▶특이한 현상= 그러나 특이한 현상은 9.11 사태 이후로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올라간 사실이다. 즉 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가 상승하여,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90%의 보험회사가 주당 순이익(EPS)의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본 비즈니스는 관광여행업계였다. 특히 연간 250억 달러의 대상과 28만 명의 종업원을 자랑하던 뉴욕시의 관광업계는, 9.11 사태 직후 3천 명의 종업원이 해고되고 호텔방의 40%가 비게 되는 불경기를 감내해야 했고,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항공사의 어려움도 예견된 대로였다. 곧바로 수많은 종업원이 해고되고, 문을 닫는 항공사도 생겨났다.

그 후 계속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줄어들어서 항공업계의 실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부도 직전의 항공사가 많아져서 연방정부에서 50억 달러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었고, 100억 달러의 용자 보증도 해주었다.

한편 테러방지를 위한 보안조치가 공항, 정부건물, 대형빌딩 등으로 번지면서 국가 안보와 국방관계의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 사이드에서는 불경기로 말미암아 이와 관련된 비용 지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테러 시작= 2001년 9월 11일 아침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북쪽 타워가 먼저 공격을 받았는데, 뉴욕 증권 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남쪽 타워가 공격을 받아 증권거래가 중단되었고, 나스닥(NASDAQ)도 곧바로 거래를 중단했다.



2001년 9월 11일 항공기에 의한 무자비한 테러가 세계 무역센터(WTC) 빌딩에 시작되던 사진이다. WTC 빌딩은 각각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로 1동은 높이가 417m, 2동은 415m로 1972년에 개장했다. 1973년 시카고에 시어스 타워가 완공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

이후 런던 증권 거래소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대부분 증권거래소가 당일 문을 닫았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당일 7.13%가 떨어졌고 1주일 내에 14.2%가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주가는 기대 이상으로 빨리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동경증권 거래소는 6일 만에 주가를 회복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은 13일 만에 런던은 22일 만에 주가를 회복하였다.

이는 은행과 금융권에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가폭락을 막을 수 있는 자금의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9.11 사태에 의한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고, 주식시장이 테러 이전의 상태로 단시일 내에 복귀한 것으로 판명났다.

▶미 GDP의 0.275%= 이상 살펴본 대로 9.11 사태는 미국정부와 민간 업체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지만, 미국 전체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재산 손실이 민간 기업체에 140억 달러, 주·시정부 15억 달러, 연방정부 7억 달러에 달했고, 복구 비용이 110억 달러였다. 뉴욕시는 로우어 맨해튼의 사무실과 상가 중 30%가 피해를 당하였고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그러나 이러한 손실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의 0.275%에 불과하였다.

그 후 미국 전체의 성장률은 2002년에 1%, 2003년에 3%, 2004년에 4%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의 경제가 9.11 테러의 후유증을 감내할 만큼 튼튼하였다는 증거다.

▶테러방지에 예산의 20%= 지금 미국은 연간 5천억 달러를 국방과 국토 안전·보안에 쓰고 있는데, 이는 연방예산의 20%에 육박한다. 그리고 미국의 국내총생산의 0.7%가 테러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다.

테러방지에 대한 예산이 연간 1천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연방 정부의 교육과 의료 혜택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9.11 테러 사건 이후 오사마 빈 라덴이 지휘하는 알카에다는 그들이 계획한 테러가 성공리에 끝남으로써 미국은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처음에 이 숫자는 과대한 것으로 느껴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숫자는 현실에 가까워져 버렸다.

즉 중동 테러 근절과 알 카에다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지난 10년간 국방비와 전쟁비용으로 5조 원을 써버렸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3년 전에 야기된 금융위기의 시초가 빈 라덴의 9.11 사태에 연유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 경제에 버블조성= 전술한 대로 미국은 테러 사태로 빈사상태에 빠진 항공산업을 위해 50억 달러를 직접 지원한 데 이어 100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제공하였다. 또 2002년 초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수행하였다. 그 해의 감세 효과만 510억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연방 준비은행(FRB)은 2001년 9월 초 3.5%였던 연방 기준 금리를 3개월 연속 0.5% 포인트씩 낮춰서 11월에 2%까지 급강하시켰다. 저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해서 결국 버블(거품)이 쉽게 만들어질 여건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빈 라덴은 미국의 금융시장에 버블이라는 시한 폭탄을 떨어뜨려 놓은 셈이다.

그로부터 만 7년 후에 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를 겪게 된 것이다.

기 고

칼럼

홍난파 선생 70주기를 기리며



한수웅(의대 55)

지난 8월 30일이 난파 홍영후 선생의 70주년 기일이다.

그는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에 관련, 종로 경찰서에 검거돼 72일간의 혹독한 옥고를 치르는 중 녹막염이 재발해 석방은 됐지만 그 후 3년 병마에 시달리다 43세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그의 천재성을 감안하면 대단히 애석한 일이다.

홍영후는 1898년 4월 10일 경기도 화성군 활초리에서 태어났다. 부친 홍준은 국악에 조예가 깊었고 어학에 능통해 연세대를 설립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한국말 선생이었다.

난파는 두살 때 가족을 따라 서울 정동으로 옮겨와 정동교회로 다니며 서양 음악에 처음으로 접촉하게 된다. 15세 때 '정악전습소'에 입학해 김인식 선생께 바이올린을 사사한다. 천재 제자는 1년 후 스승을 앞서기 시작해 그 해 말 세브란스 의전 강당에서 열린 성탄 음악회에서 바이올린 독주로 유명해져 다음 해부터 연간 30회 이상 순회연주하며 차츰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하게 된다.

여기서는 홍난파 선생의 생애와 활동보다 그가 남긴 일화를 중심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려 한다.

난파는 17세 때 연희전문 문학과 제1회에 입학하고 다음 해 부친의 권유로 세브란스 의전으로 전학한다. 그러나 그는 음악에 대한 애정 때문에 의전을 1년만에 중퇴하고 1918년 일본에 유학, 부모 몰래 동경 우에노(上野)음악학교 예과에 입학해 2년째 1919년 3.1 운동 참여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애지중지하던 바이올린을 전당 잡혀 독립선언문을 인쇄했고, 그 때문에 음악학교 복학을 거절당한다.

그는 서울에 돌아와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창작과 세계명작 번역에 몰두한다.

이때 창작집이 여러 권 나온다. 첫째가 '처녀혼'이었는데 그 서두에 '애수'라는 멜로디를 붙여 내놓은 것이 후에 '봉선화'의 곡이 됐다.

이 '봉선화'를 최초로 부르기도 또 널리 퍼지게 한 당대의 소프라노 김천애에 의하면 난파와 이웃에 살면서 교분이 두터웠던 김형준이 작사했는데 그의 율안에 가득찬 봉선화 꽃이 "우리 신세와 같다"는 애기를 하곤 했다는 것이다.

'봉선화'는 한국 최초의 반

주곡으로 창가시대에서 반주시대로 들어가는 첫번째 곡이라는 점에서 음악사상 중요한 맥을 지은 것이다.

1921년 6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처녀혼'을 출판하고 같은 해 '쿠오바디스'를 번역, 다음 해 트루게네프의 '첫사랑'을 번역 출판한다. 1923년 스텔만의 '매국노의 자', 스파일스의 '청년일지'를 번역하고 에밀 졸라의 '나나'를 번역했다. 같은 시기 소설 '최후의 악수', '허영', '향일초', '청춘의 사랑', '폭풍우 지난뒤' 등을 출판했다.

그가 23세에 '봉선화', '성불사의 밤', '옛동산에 올라', '고향의 봄', '고향생각' 등 10여곡의 가곡을 남겼는데 이는 모두 시에 곡을 접목시키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많이 애창되는 '오빠생각', '나뭇잎', '개구리'를 비롯한 100여개 동요곡을 작곡하고, '애수' 및 '로망스' 등 8개 기악곡을 작곡해 '한국의 슈베르트'로 불리기도 한다. 만일 그가 오페라 몇 곡만 작곡했다면 '한국의 모차르트'로 불리울 뻔 했다.

1924년 소설 '폭풍우 지난뒤'를 발표했을 때 술자리에 서 수주 변영로가 난파에게 시비를 걸어왔다.

"너 이자식아. 뽕뽕이나 켜면 켜지. 주제넘게 소설은 뭐냐? 아, 그래. 천지개벽하고서 두가지 예술에 통달 대성한 천재가 있어? 있으면 말해봐."

난파 왈, "수주 자네도 어지간히 무식하군. 바그너를 모르다니, 뜻밖인데, 시인이요, 음악가이신 바그너 말입니다!"

수주는 질세라 한 마디 더 한다. "장하다! 그런데 난파, 자네야말로 그같은 불세출의 대천재다 그 말씀이지?"

그날 밤 난파는 집에 돌아와 반쯤 쓰고 있던 소설을 불살라 버리고 문필활동에 종지부를 찍는다. 변영로와 난파는 일본 유학 시절 한 방에서 기거했던 막역한 친구였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던 유학시절이니 그 당시 분위기를 알만도 하다.

1926년 난파는 동경 고등음악학원 야간반에 편입한다. 재학 중 그는 도쿄 신교향악단(지금의 NHK 교향악단)의 제1바이올린 주자로 입단해 1929년 고등음악학원을 수료하면서 교향악단을 사직하고 귀국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일본의 많은 바이올린 주자를 모두 제치고 식민지에서 태어나 한국인 선생에게 사사한 한국의 젊은 청년이 제1 바이올린 주자로 부상했다는 사실이...

1931년 7월 난파는 시카고의 Sherwood Conservatory of Music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가는 도중 8월 18일 하와이에 들러 미술관 노천극장에서 첫번 독주회가 열린다.

저녁 이슬비에 우산을 쓰고 의자에 앉아서 듣던 청중들이 곡이 끝날 때마다 열렬히 환호해

주고 또 꽃 목도리를 걸어주어 감격하고 득의작약했다.

난파의 미국유학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수업료를 제때 못내 분납했고 교통사고로 녹막염을 다쳐 후유증으로 녹막염에 시달렸다. 그러나 1932년 12월 8일 홍사단에 가입했고, 유학후 귀국길에 로스앤젤레스의 홍사단 대회에 참가했다.

'봉선화'가 널리 퍼져 거제의 심금을 울린 것은 1942년 봄부터였다. 당시 무사시노 음악학교 4학년생이었던 김천애가 히비야 공회당의 전 일본 신인 음악회에서 이 가곡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였다.

한복을 입고 출연한 김천애는 연속되는 앙콜곡을 부르다 네번째 곡으로 봉선화를 불러 큰 감동을 이뤘다.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김천애가 귀국후 서울 부민관, 하세가와 공회당, 평양 키네마 등에서 독창회를 가지면서 봉선화를 불러 주권을 찬탈당한 민족의 아픔을 달래는 노래로 부상했다.

일본경찰은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했지만 김천애는 무대에 설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 여러 차례 연행됐다. 봉선화는 독립의 염원가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이탈리아 독립의 대명사가 된 것과 같은 이야기다.

소프라노 김천애는 1919년 평남 강서군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근대음악에 집착 수 있었다. 경성보육학교 시절부터 소프라노 이대형과 단짝이었는데 그들은 공히 난파의 제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은 일생 계속됐다.

미국유학에서 귀국한 난파는 소프라노 이대형과 새로운 사랑을 찾게 된다. 김천애는 난파와 이대형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다. 난파는 이대형에게 좋은 남편감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자신의 사진을 내밀었다.

열렬한 연애 끝에 그들은 1934년 12월 27일 결혼해 가정을 꾸미게 된다. 몇년 후 딸을 낳았고, 그녀가 현재 난파 기념사업에 힘쓰고 있는 홍정임 여사다. 그녀는 자기 출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바 있다.

"제가 태어나던 날 아빠는 종로 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아빠가 안계신 저는 임(姓)자 둘림에다 정축년에 태어났다고 정(丁)자를 붙여 '정임'이라는 이름을 받게 됐습니다. 감옥의 아버지께 흰 옷을 넣어드리는 어머니는 빈번히 피투성이 되어 나오는 아버지 옷을 받아 들면서 이렇게 애청하셨다고 합니다."

"이 분은 몸이 약하신데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일본 경찰은 조종조로 "당신도 콩밥이 먹고 싶어요?" 하며 반문했다고 합니다..."

난파의 음악활동을 요약해 보면, 1915년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 교사로 부임하면서 '악전대요', '통속창가집'을 출간하고 '간이 무도행진곡집'을 편찬한다.

1919년 동경에서 예술잡지인 '삼광'을 창간했으나 경영난으로 4호에서 폐간된다. 1925년 '세계명작가곡선집'을 편찬, '봉선화'를 수록한다.

1931년 그는 조선음악가 협회창립총회 상무이사로 선임된다. 1933년 '조선동요백곡집' 한편, '조선가요작곡집'을 발

매한다. 같은 해 최초의 실내악단 '난파 트리오'를 결성한다. 이는 난파와 그의 조카 홍성유, 이영세로 구성됐으나 3년 후 홍성유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해체된다. 1938년 음악잡지 '음악만필'을 발행한다.

1954년 난파기념사업회가 설립돼 '조선동요 100곡집'을 재 간행한다. 난파의 작곡활동은 모두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정됐지만 그의 가곡은 광복 이전부터 애창됐고 광복 이후에는 더 널리 애창되고 있다.

'봉선화'는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민족의 노래로 널리 불리고 '고향의 봄'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국민가요로 남북을 소통해 애창되고 있다. 그의 멜로디의 대부분이 한국적인 은근과 끈기를 담고 있다. 이런 멜로디에 서정적 시와 동요를 유연하게 접목시켰다. 그의 가곡은 한국적인 서정을 담백 담고 있다.

'성불사의 밤'을 보더라도 넘쳐 흐르는 한국적 서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첩첩 산 속 깊이 자리잡은 우리 불심의 신비스런 정경을 은밀히 그려내니, 먼 길에 지친 만해 한용운의 고된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듯한 정취를 풍기기도 한다.

그는 서양의 근대 음악에 깊이 심취되면서 한국적 서정을 담은 멜로디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솜씨를 보여 주었다. 그는 한국적 선율을 찾아내고, 그를 우리 말의 어감과 어투에 맞도록 다듬었던 것이다.

그는 우리의 시와 동요가 서양 음악에 곧잘 접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찍 터득해 우리 말의 어감과 어투를 그대로 살려가면서 한민족의 정서를 살릴 수 있는 극히 한국적인 근대음악을 개척하고 또 정착시키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우리가 잘 아는 벨리니 및 도니체티의 음악을 보면 그들은 멜로디의 작곡에 대단히 뛰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난파도 그에 못지 않게 멜로디 작곡의 천재성을 갖고 있었다.

가곡의 성격이 시(詩)의 내용으로 정해지기 마련이다. 물론 학자에 따라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바그너는 시를 남성에게 비유하고 음악을 여성에게 비유하면서 음악은 시의 의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그너의 음악을 음미해 보



면 그의 우수한 음악이 그의 시를 아름답게 장식한 결과가 된다. 바그너의 오페라도 그의 뛰어난 음악 덕분에 더 많이 애창, 청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악은 시를 장식해주고, 사람의 육성이 시와 음악에 날개를 붙여준다"고 흔히 말한다. 따라서 난파의 음악과 시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읊어본다.

"민족의 열이 담긴 주옥같은 시 한 수 한 수에 난파의 아릿다운 선율이 색동옷 입혀주고 겨레의 설레이는 육성이 쌍날개를 달아주니 슬기로운 한민족의 열이 시공을 초월해 영원으로 울려 퍼진다."

난파는 문학창작에서도 수준을 넘었지만 작곡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었다. 그가 생을 제대로 마쳤더라면 벨리니·도니체티·베르디 및 바그너에 버금가는 작곡가로 많은 한국풍의 오페라를 작곡했을 것을 생각하면 그를 요격케한 일제의 만행이 한층 더 가증스럽다.

이런 일제의 만행보다 더 흉악한 일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도 않은 시정잡배들이 우리 민족의 정기와 열을 다듬고 사수한 선각자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제단하고 모독하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애국했는지 누가 역적노릇을 하고 있는지는 훗날 역사가 심판해줄 것이다.

홍난파 선생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 경찰에 고문당하고 오랫동안 수감되면서 결핵성 녹막염을 앓게 됐다. 결국 결핵성 녹막염까지 유발, 1941년 8월 30일 향년 43세를 일기로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는 그렇게 감방하던 조국의 광복을 못본채 눈을 감았다.

몸은 비록 가졌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우리 민족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의 따님 홍정임 여사가 난파 기념사업회 일로 대단히 분주하고 열정적이다. 홍여사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 박호현씨와 결혼해 지금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살고 있다.

그 슬하에 수지와 해롤드가 있는데 수지는 할머니를 많이 닮았고 해롤드는 난파 선생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며 지금 건축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가 할아버지와 자기 부친의 천재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기 고

수필·칼럼

“마지막처럼...”



박평일(농대 69)
미주 총동창회 감사

요즈음 들어서 지인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횟수가 부쩍 잦아진다. 나도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같아서 괜히 마음이 엄숙하고 숙연해 진다.

얼마 전에 인터넷 신문들 통해서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의 수필을 읽은 적이 있었다.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의 요란스런 죽음과 이름없는 장애인들의 죽음을 비교해 쓴 수필이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는, 그 정도 평범한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 글을 읽고 웬지 몇주동안 마음이 무거웠다.

학창 시절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나이먹은 사람들의 꾸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 심각하게 마음 속에 담아두지 않고 살아 왔다.

그런데, 이순의 나이를 넘기고 나니 그 말의 의미가 자꾸 뇌리를 스쳐간다.

며칠 전 가깝게 지내는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술직히 나는 한국인 특유의 체면치레로 조의금이나 떨구어

놓기 위해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나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음은 있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나의 손을 째히 쳐다보고 있는 접수하는 분들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했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예외적으로 고별예배 뿐 아니라, 그 뒷날 하관예배까지 참석했다. 그 이유는 유족인 친구와의 각별한 사이라는 탓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치러질 나의 하관예배 모습을 미리 체험해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1924년 한국출생, 부인 3년 전 사망. 유족 5남매와 5명의 배필들. 손 16명, 배필 4명, 증손 5명. 경력, 일제 만주강제징용, 한국 철도청 근무, 1974년 미국이민, 워싱턴 DC. 메트로 25년 이상 근무.’

고인에 대한 간략한 이력서다. 고인은 암을 앓았던 일제강점기에 한국 땅에 태어나 일제, 해방, 6.25, 보릿고개, 군사독재시대 등 한국 현대사의 온갖 험란했던 격동기를 모두 경험하고 뒤늦게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이다. 그것이 이민 1세 아버지들의 전형적인 과거 역사이고 살일지도 모르겠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인은 87세라는 천수 이상의 장수와 세상의 오복을 모두 누리고 간 축복 받은 사람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고인을 혼자서 저세상으로 보내야 하는 유족들은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들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아버지! 천국에 가서서 이 땅에서 이룩하지 못한 꿈과 생글의 꿈을 꼭 실현하시길 빌

께요. 이메일로 그 기쁜 소식을 알려 주시면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고인의 장녀가 흐느끼며 읽어가는 마지막 장례사가 우리들 모두의 눈시울을 적셨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건가. 결혼해서 애들 낳아 오손도손 기르면서 이런 작은 소망과 꿈들, 그리고 그리움과 사랑으로 엮여가는 짧은 이야기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삶을 두고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는 위대한 삶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나는 운구차를 뒤따르는 긴 자동차들의 행렬에 끼지 않고 혼자서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장지까지 걸기로 했다. 공동묘지 파란 잔디 위에 촘촘히 박혀 있는 수많은 비석들 위에는 주인공들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죽은 날이 어김없이 새겨져 있었다. 그외 다른 것이 라곤 발견할 수 없었다.

기원 전 350여년 전, 20대 약관의 나이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알프스산 정상에 올라 이렇게 한탄했다.

“아, 나는 이 세상을 정복했으나 죽으면 한 평의 땅도 소유할 수 없구나.”

나는 오늘 그 한숨어린 탄식의 실상을 눈 앞에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한참을 걷다가 장지가 내려다 보이는 정자 안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장지 너머로 아직 비어 있는 넓고 파란 잔디밭의 확 트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도, 운구차를 자동차로 따르고 있는 저 수많은 조문객들도, 언젠가는 저 대지 한 귀퉁이의 주인공으로 묻히게 될 것이다. 정자처마에 매달려 있는 윈차임(Wind Chime) 소리가 스쳐가는 미풍에 서럽다.

고인의 죽음은 저 윈차임 소리인가, 아니면 윈차임 소리가 허공에 남겨두고 간 여운일까. 20여년 전(?) 미국작가 스티

븐 코비(Steven R. Covey)가 쓴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The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 속에 아래와 같은 조셉 에디슨의 글이 인용되었다.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볼 때, 내 마음 속에는 시기심 같은 감정은 모두 사라져 버린다. 미인들의 묘비명을 읽을 때, 무절제한 욕망은 사라져 버린다. 아이들의 묘비에 새겨진 부모들의 슬픔을 읽을 때, 내 마음은 동정으로 누그러진다. 옆의 그 부모들 무덤을 볼 때, 곧 따라가 만나야 될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쫓겨난 왕들이 그들을 쫓아낸 사람들과 나란히 묻혀 있는 것을 볼 때, 또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나란히 묻혀 있는 것을 볼 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놀라게 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볼 때, 나는 인간의 하잘 것 없는 경쟁, 불화, 논쟁에 대해 슬픔과 놀라움에 젖는다. 묘비에 적혀 있는 날짜들을 읽어가면, 어제 죽은 사람도 있고, 6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다. 이를 보면 나는 모두가 부활하여 함께 살고 동시대의 사람이 되는 날을 생각해 본다.” -조셉 에디슨-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일까? 스티븐 코비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출발을 자신의 가상 장례식 관 속에서부터 시작했다.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이 파킹장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족과 친인척 대표,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와 봉사단체 지인들이 읽어가는 조사들을 몰래 엿들으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 보며 성공적인 삶의 모델을 설계하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전 가족이 서울에 모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를 모두 여의고 남은 자손들끼리 화목을 다지는 모임을 합니다.

벤쿠버로 돌아가기 전에 친지들도 뵙고 자손들끼리의 우애와 화목을 돈독히 할 예정입니다.

또 언제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벤쿠버에서 ‘퇴임’ >

합니다. 자식으로써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7남매중 저와 남동생이 해외에서 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동문 동정

부임 · 출판 · 출판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김동인 동문

한미은행 실리콘지점장으로 부임

한미은행 실리콘밸리 지점에 김동인 동문이 신입 지점장으로 최근 부임했다.

김동인 지점장은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다짐했다. 이번 김 지점장의 발령은 한미은행 본사가 '영입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단행했다는 후문이다.

김 지점장은 이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문턱을 낮춰 누구나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어서 그는 "은행의 이익만이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나름대로의 포부를 밝혔다. "지역 행사마다 적극 참여, 홍보하며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한미은행은 객장 서비스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 보완하고 있다. 친절과 미소로 고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미은행은 82년 한인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미주에 오픈해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앞으로 한인 고객 뿐만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 유치에도 여러 모로 힘써 주류사회 은행과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점장은 모교 상대 졸업 후 뉴욕주립대, 롱비치 주립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배순혜 동문

세크라멘토 안국학교 교장 부임



"15년 교사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모국어 교육과 학생들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순혜(사진) 동문이 세크라멘토 한국학교장에 새로 취임, 2011 가을학기부터 학교를 운영하면서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배순혜 신입교장은 "학생들의 언어 학습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고 설레인다"며 "학

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서서 그들이 기대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순혜 신입교장은 또한 "좋은 습관이 성공적인 삶을 만든다는 말처럼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각반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사회, 교사들과 함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앞으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배 신입교장은 모교 사대 독일어 교육과를 졸업했으며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잠실 고등학교, 부산 동여자고등학교 등지에서 15년간 교사로 봉직 한 바 있다.

특히 독일어 1급, 일본어 2급, 영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 향후 열정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이원택 동문

수필집 '온미경' 출판기념회

정신과 전문의 이원택 동문이 네번째 수필집 '온미경' (창조문화)을 펴냈다.

2010년 계간 '문학 예술'을 통해 수필가로 등단한 이원택 동문은 그동안 정신과 전문의로 상담을 하며 경험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 염원등을 담은 수필집 '만화경', '요지경', '무아경'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수필집에도 여러 삶의 모습이 정신과 의사의 시각으로 다양하게 수록됐다.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1980년 하버 UCLA 신경정신의학파를 수료한 이원택 동문은 현재 웨



스턴 유니버시티 정신과 임상 부교수로 일하며 수필가로 창작생활을 하고 있다.

강세대 목사

'하나님 사람에게 감동받다' 출판

동문 강세대 목사(뉴저지 복음장로교회)가 저서 '하나님, 사람에게 감동받다' (두

란노 출판)을 펴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과 교회를 만드는데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973년 미국에 와 35년간 목회자로서 체험담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자 몸부림쳐온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담고 있다.

강 목사는 모교 사범대학에 입학 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바쳤다. 1973년부터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 미국장로교(PCA)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다.



유희자 동문

성가풍의 가야금 작곡집 음반 출판

가야금의 소리를 담은 음반(사진)이 유희자 동문에 의해 출판됐다. 국악 무용 연구소의 유희자 동문은 가야금을 일반에게 널리 보급하자는 취지에서 가야금과 대중 음악의 접목을 시도했다.

이 음반 제목은 '유희자 가야금 작곡집'으로 자작곡 한 15곡이 수록돼 있다. 이중 8곡은 직접 가사를 만들어 붙였으며 '꿈일 뿐', '제회', '아리랑 변주곡', '코리아 타운'과 '태평양 갈매기', 'La Muerte Del Amor(사랑을 가슴에 묻고)', '가야금으로 주님 찬양', '항상 내곁에 계신 주님' 등 이민의 삶을 담은 음악과 성가풍의 가야금곡 가야금

산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음반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인 제임스 브레이씨가 음악 총감독

을 맡았고 서울대 음대 출신 소프라노 신은석, UCLA 성악과 출신 테너 최왕성, 흑인 테너 존 토마스가 함께 했다.

플룙은 윤스 플룙 대표 윤영복씨, 카혼 붐고 카시시 레인 스틱 등, 타악기는 켄 필립스, 양금은 인도계 유대인인 머를리사메쉬, 키 보드는 브라질인 샌드라 라벨씨가 맡았고 가야금 장고 북 쟁과리는 유희자 동문이 직접 연주했다.

유 동문이 직접 연주한 가야금 산조 부분은 진양조·중모리·굿거리·자진모리·휘모리 등 5악장으로 돼 있으며 재래식의 12줄 짜리 가야금을 사용해 전통적인 5음계가 아닌 12음계를 모두 사용해 만들었다. 또한 민요·찬송가·팝·월츠·기악곡 등 다양한 곡이 수록돼 있다.

유희자 동문은 1972년 모교 음대 국악과를 졸업한 뒤 그 해 도미해 77년 캘스테이스 노스릿지에서 작곡으로 석사 학위를 받고 99년부터 '유희자 무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물리학 최규현 박사

산호세서 수학·과학 무료 강의

태양광 연구에 몰두중인 물리학자 최규현 박사가 아들 최수호씨와 함께 한인 학생들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두시간씩 수학·과학 무료튜터링을 열고 있다.

산호세 한 모임방에서 진행된 무료과외는 혹시 모를 결강에 대비해 아들에게 보충교사역을 당부해왔다.

최 박사는 "앞만 보고 살아

왔던 것이, 그저 나만 잘 살고 말았을 뿐 주변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너무도 미약하지만 이제라도 조금 실천하고 싶어서요"라고 말했다.

최 박사의 수학·과학 무료튜터링은 8월20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4시까지 SV한인회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의는 yuhchoi@gmail.com을 이용한다.

동문 동정

강연 · 부임 · 전시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민족사학자 이만열 교수

광복절 연합감사예배서 강연

한국의 대표 민족사학자인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수(숙명여대)가 지난 8월 LA에 와서 강연회를 가졌다.

이만열 교수는 8월 14일 오후 5시 중현 선교교회에서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회장 민중기 목사) 개최로 열린 2011년 제66주년 광복절 기념 연합감사예배에서 '노예로부터 해방 받은 자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튿날인 15일 오전 10시30분에는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목회자를 위한 특별강연회'를 통해 '8.15 해방의 현재적 의의'라는 제목으로 강연도 실시했다.

한국 기독교계의 지성으로 불리는 이만열 교수는 예상 고신 교단의 장로로 신앙은 보수, 역사적 시각은 진보에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진보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아끼지

이만열 교수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초청으로 지난 8월 14~15일 LA에서 광복절 강연회를 가졌다.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됐다가 복권됐다.

일본의 독도 왜곡정책에서부터 개신교계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는 논객이기도 하다.

최근 이만열 교수는 금권선거 논란을 불렀던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 사태와 관련해 한기총 해체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1인 시위 첫 문을 연 이 교수는 "한기총은 한국 교회의 대표기관인 양 행세해왔지만 지난 행태를 봤을 때 존재 가치가 없다"면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1963년 모교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70년부터 2003년까지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명예교수다.

한국 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8대) 등을 역임했다.

소은주 동문

워싱턴 안국교육원 첫 여성원장부임



주미 한국대사관 워싱턴 한국교육원에 소은주(45·사진) 동문이 원장으로 부임해 근무하고 있다.

워싱턴 교육원장으로 여성이 부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부임한 주미 한국대사관 통일관도 여성 국장급이어서 '대사관의 여성파워 시대'가 왔다는 소리도 들린다.

소은주 원장은 "재외동포 교육 지원이 주 목적인 교육원의 취지를 잘 살려 한국어, 한국 문화 교육 지원과 민족 정체성

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 원장은 최근까지 교과부 학교 선진화과 교육 연구관, 국립전통예술중고교교장직무대리,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교육연구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연구관 등을 지냈다.

부산 남성여고, 모교 영어교육(학사)및 교육학(석사)을 마치고 1989~2000년까지 서울 영등·서운중학교 및 서울사대 부속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해 현장 경험도 풍부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에는 지난 2000년 학술원사무국 교육연구사로 발을 들였다.

소 원장은 "세계화와 한국 문화가 널리 알려지는 시대에 맞게 워싱턴 지역에서의 한국어 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을 위해 알게 모르게 노력하고 있는 각 한국학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신경정신과 김승태 박사

하와이 헬스 오소리티 위원 선임

김승태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9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주정부 최고 보건정책 심의기관인 하와이 헬스 오소리티(Hawaii Health Authority) 위원으로 임명됐다.

하와이 주 하원 라이언 아마네 보건분과위원장의 권유로 위원직을 수락한 김승태 박사는 "하와이 모든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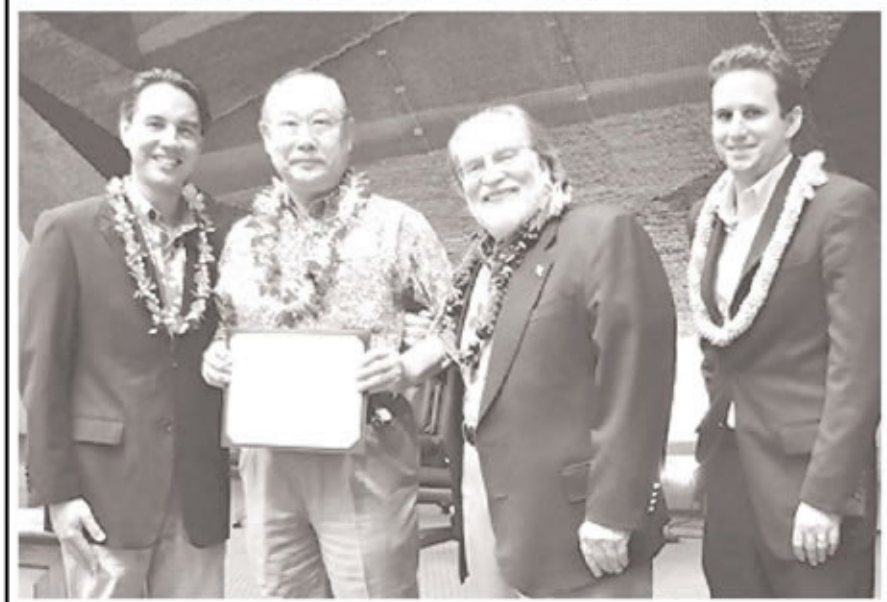
하와이 헬스 오소리티는 2009년 하와이 주 의회가 설립을 승인해 올해부터 가동되는 기관으로 하와이 주민들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구축해 관리감독하게 된다.

김 박사는 "HHA의 프로젝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과는 또 다른 제도"라며 "하와이 주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종합 의료보험은 연방정부의 그것보다도 앞선 형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HHA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지사 직속 헌법기관이며 앞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공공 의료보험을 마련키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8년 7월 린다 링글 전 하와이 주지사에 의해 하와이 전 지역 의료보건서비스 조정위원회에 발탁된 바 있는 김승태 박사는 1963년 모교 의대 졸업후 68년에는 뉴욕대에서 신경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하와이 주립대에서는 2002년 경영학 석사학위도 이수했다. 현재 UH 의대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며 부인 김옥석 박사가 운영하는 심신치유 센터의 청소년 정신상담도 맡고 있다.



화가 방성제 동문

버클리시 공모전 입상작품 시형 전시

화가 방성제 동문의 작품이 버클리시 공모전에 입상, 버클리 시청건물에 전시되고 있다.

버클리 시는 지난 해 11월 '다인종 다문화의 화합'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했는데 방성제(37) 동문의 그림 4점이 선정된 것이다.

방성제 동문의 입상작품은 '후렌치 후라이'와 '템푸라 일본 도시락', '밀크 셰이크', '샌드위치' 등 4점으로 음식을 소재로 했다.

방성제 동문은 "미국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누구나 즐겨먹는 음식을 통해 다인종 간 화합을 표현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져 작품이 선정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버클리 시가 2010~2011 실시한 작품 공모에는 총 160점의 작품이 들어 왔는데 이중 75점

방성제(오른쪽) 동문이 톰 베이츠(Tom Bates) 버클리 시장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선정됐다.

버클리시의 톰 베이츠(Tom Bates) 시장과 메리 앤 메커(Mery Ann Merker)아트 커미셔너도 "작품이 다인종간 화합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한 작품"이라면서 찬사를 했다.

방 동문의 작품은 시빅센터 2층건물에서 올해 연말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있다.

버클리 작품 공모에 입상한 방성제 동문은 모교 미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 시카고 더 스쿨 오브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했다.

대학원 졸업 뒤 시카고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수차례 가졌는데 시카고 섀타임스 등 지역신문에 크게 소개됐다.

지난 2005년 베이지역 서니베일에 스튜디오 Suha Suha를 운영하면서 학생도 가르치는 등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일상의 삶을 작품 소재로 하고 있는 그는 도자기로 만든 공예품(목걸이, 컵받침)을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테너 서병선 동문

제24회 탈북난민돕기 음악회 개최



뉴욕 예술가곡 연구회(회장 서병선·음대 65·사진)가 10월 2일 오후 6시부터 뉴욕 플러싱 JHS 189 Auditorium 중학교 강당에서 제24회 '탈북 난민돕기 음악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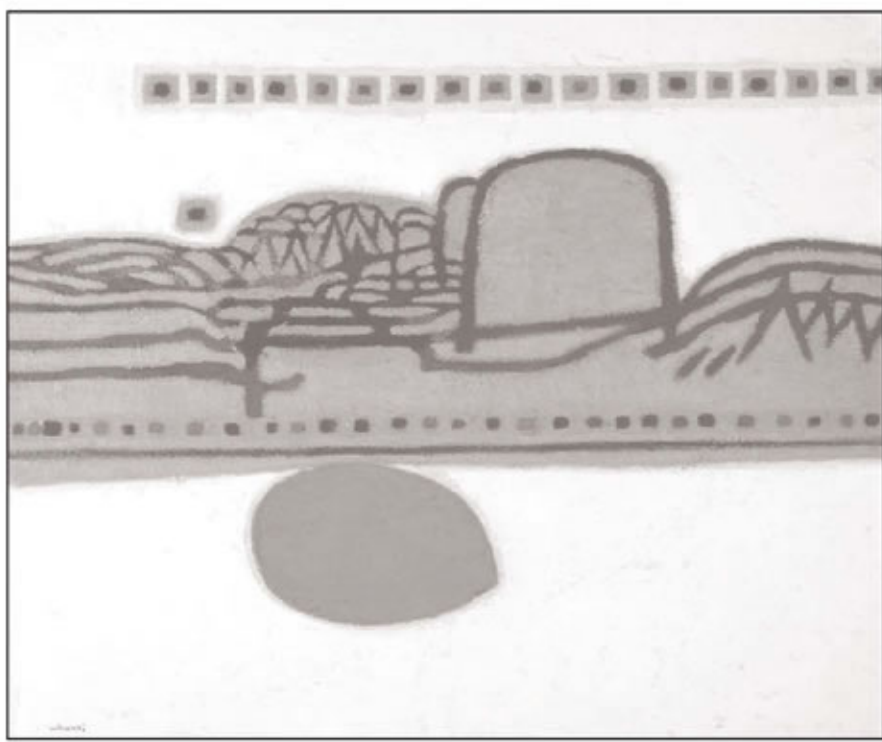
서병선 동문 외에도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동문을 비롯해 피

아노 김혜원, 바리톤 유재용, 소프라노에 박진원·이승희·박유리·박영경 등이 출연한다. 또 The New York Grace Women's Choir(단장 안성순)가 앙콜 특별 출연해 합창음악의 화음의 진수를 보여준다.

공연 입장 티켓은 15달러다.

동문동정

경매 · 박람회 · 출간 · 공연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김환기 화백 등 거장 트리오

크리스티 뉴욕에서 경매 실시

김환기 화백을 비롯, 박수근·이중섭 등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 트리오의 작품이 9월 14일 크리스티 뉴욕에서 경매됐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으로 제작 연대 미상의 '푸른풍경' (146 x 145cm)은 이날 한국 미술품 중 최고가인 200만~220만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혜경 크리스티 한국미술 담당자는 "김환기 화백의 성숙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경매에 나온 작품 중 가장 큰 그림"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3월 142만6천500달러에 팔린 김환기 화백의 '2-V-73 #313'은 크리스티 경매 사상 최고가의 한국 근현대미술품으로 기록됐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 '푸른풍경' (146 x 145cm)

로 기록됐다.

▶추상 1호 김환기= 그의 호는 수화(樹話)다.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김환기(1913~74) 화백은 자연, 특히 한국의 산과 강을 사랑했고 그리움을 화폭에 담았다. 일본·프랑스·뉴욕에서 세계의 미술사조를 접하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구축했다.

전남 신안에서 태어나 1936년 니혼대 미술과 졸업 후 추상화를 시작, 한국 추상미술의 제1세대로 서울대에서 가르치면서 아방가르드와 아르누보, 신사실과 등 미술운동을 전개했다.

1956년 프랑스로 건너가 3년간 수학한 그는 산과 달과 구름 등 고국의 산천을 반추상의 간결한 선으로 담았다. 1963년 제7회 사옹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입상한 후 바로 뉴욕에 정착한다. 당시 미 추상파와 팝아트를 목격했지만, 점화를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추상주의를 성취하다가 61세에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고향 신안에 그의 생가가 전라남도 기념물 제 146호로 지정됐으며, 93년 서울 부암동에 환기 미술관이 개관했다.

▶국민화가 박수근= 독학으로 공부한 박수근(1914~65)은 가난한 농가의 정경과 서민들의 일상에 시정을 가미했다. 화강암의 질감을 연상시키는 마티에르로 독보적인 화풍을 개척했다. 작품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18.3x34cm, 1965)은 예상 낙찰가가 40만~50만 달러. 김혜경씨는 한복 입은 세 여인과 소년의 행로를 그린 이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 뉴욕은 박수근의 작품 21점을 경매한 바 있으며, 2004년 박수근의 '앉아있는 아낙과 향아리'가 123만4500달러에 낙찰된 바 있다.

강원도 양구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수근은 양구 보통학교 졸업 후 가세가 기울자 진학을 포기한다. 열두살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하다가 18세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했다.

가난했던 시절 미군들 초상화를 그리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1952년 중학교 미술교사로 형편이 나아지자 오두막집을 사서 작업실로 썼다. 59년 국전 추천작가, 62년 심사위원까지 지냈으나 51세에 간경변으로 사망한다. 2002년 고향 양구에

박수근 미술관이 세워졌다.

▶야수파 이중섭= 크리스티에 이중섭의 그림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싸우는 소' (27.5x39.5cm, 1955) 예상가는 100만~120만 달러. 이중섭(1916~56)의 그림에 자주 나오는 황소는 고난을 이기는 투쟁의 은유다. 야수파의 영향을 받은 황소에 대해 그는 용 벽화와 고구려 고분에 있는 짐승에서 영감을 얻었다.

평남 평원에서 부농의 아들로 태어난 이중섭은 오산학교 졸업 후 일본 도쿄문화학원 재학 중 자유미협전에 출품해 태양상을 수상한다. 일본여성 야마모토 마사코와 결혼한 뒤 1944년 귀국, 해방 후 원산에서 살면서 공산체제 하에 어용 그림을 그리지 않고 버티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해 부산·제주·통영 등지를 전전하며 부두노동자 생활을 한 이중섭은 종이 가 없어 담뱃갑 은박지에 송곳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생활고에 지친 아내는 두 아들과 일본으로 건너갔다. 1956년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 시달리며 생활고가 겹치자 정신분열증을 보이다 마흔살에 간염으로 사망했다.

그가 살던 제주도 서귀포 초가집이 이중섭 박물관이 됐다.



서울대 병원

LA서 대규모 의료 박람회 열어

한국의 발달된 의료기술과 시설들을 미 주류사회에 소개하는 대규모 의료박람회가 오는 10월 서울대 병원을 중심으로 LA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이는 LA 한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10월 20~22일 사흘 동안 한인타운 내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한국 의료 및 병원 진료 홍보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를 주제로 한 이번 의료 박람회는 기존에 열리던 무료 건강검진과 달리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 한국의 병원 10곳 이상이 참가해 부스를 설치하고 의료시설과 기술 등을 알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서울대 병원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미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고가의 의료비용 때문에 제대로 된 진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모색한다.

대회 첫 날인 20일 저녁에는 주류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한인 및 아시안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마련된다.

박람회 기간에는 또 한인들을 위한 건강 상담과 한국의료의 미국 진출을 위한 컨퍼런스도 열린다.

에드워드 구 회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건강박람회 수준을 벗어나 '의료산업 박람회' 성격이 강하다"며 "한국 병원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한인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의는 이번 박람회를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연례화 하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의료기기 박람회'와도 연계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혜원 동문 증보판 출간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수웅(의대 61졸) 동문과 함께 미국 사회에서도 부부 내과 의사로 잘 알려진 한혜원(의대 61졸) 동문이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사진)'의 증보판을 펴냈다.

이 책은 지난 2002년 초판이 발행된 뒤 큰 인기를 모아 지난해 말 이같이 증보판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한혜원 동문의 오페라에 대한 해설에 부군 한수웅 동문이 부록을 곁들였다.

오페라는 흔히 일반인에게는 접하기 쉽지 않아 때로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기 기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용은 추천사 외에 '오페라를 쉽게 감상하자'로 시작해서 '춘희(La Traviata)' '노



르마(Norma)' '라멜물가(家)의 루치아(Lucia di Lammermoor)' '리콜레토(Rigoletto)' 등을 비롯한 총 28개

작품과 이에 대한 해설이 소개돼 있다.

이밖에 오페라의 신녀로 불리는 '마리아 칼라스(Maria Callas)'에 대한 이야기와 필자와 오페라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였다.

또한 작곡가와 오페라 가수 편에는 베르디·벨리니·도니체티·푸치니·차이코프스키·마스카니·조르다노·모차르트·비제·구노 등의 전 작품과 초연 일자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한수웅 동문의 '오페라 변천사' 편에서 오페라란 무엇인가, 오페라의 형성과정, 17세기 초의 오페라, 18세기 오페라 등을 비롯해 오페라에 대해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예사조적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더욱 알기 쉽게 해설했다.

한혜원 동문은 현재 필라델피아 제퍼슨대 의대 내과 교수이며 이 병원 간질환 예방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바리톤 임경택 동문

시카고 리릭 오페라 공연



바리톤 임경택(미국명 조셉 립) 동문이 최근 시카고 리릭 오페라에 출연해 더욱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경택(미국명 조셉 립) 동문은 지난 3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제58회 메트 콩쿠르 최종 결승에서 우승한 바 있다.

이후 시카고의 리릭 오페라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언 오페라 센터에서 훈련받고 있는 임경택 동문은 서울에서 태어나 모교 음대 성악과와 USC 손턴 음

대를 졸업했다.

2008년 팜스프링스 오페라 길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메릴린혼 성악 콩쿠르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데뷔는 2008년 서울시 오페라단의 '돈 조반니'에서의 타이를 맡았다.

임경택 동문이 이번 리릭 오페라에서 출연한 작품은 Jacques Offenbach의 'The Tale of Hoffman'과 Modest Mussorgsky의 'Boris Godunov'였다.

특히 10월 1일 오후 6시 반에 시작하는 'The Tale of Hoffman'은 2012년 리릭 오페라의 개봉작으로 FM 라디오 98.7에서도 생중계한다.

동문 동정

전시회 • 이임 (미주 중앙일보 · 한국일보 인용)



환경보호와 평화전도의 화백 임이섭 동문

시카고 톨슨 센터서 평화기원 전시회

“미국과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며” 지구환경 보호와 평화의 메시지를 화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임이섭(미대 54) 동문이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9.11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열었다. 이는 임이섭 동문이 9.11테러 10주년을 맞아 시카고 다운타운 톨슨 센터에서 9.11을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 ‘평화를 위한 기도’를 개최한 것이다.

임이섭 동문은 9.11사태 직후 시카고 데일리 센터와, 2002년 톨슨 센터에서 같은 이름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세계 평화’를 주제로 지난 10년간 제작한 작품 8점을 선보였는데 대부분 대작들로 평균 작품 크기가 3 x 4피트에 이르고 있다. 9.11 사태 당시 전 세계 신문 헤드라인으로 올라주한 ‘Nation Shcok’, 뉴욕인들의 기

도하는 사진으로 구성된 ‘Prayer for Peace’ 등 9.11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임 동문은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로 남북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생각하며 작품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톨슨 센터는 대중이 자유롭게 지나다니며 작품을 볼 수 있어 작품으로 대화하기에 적합한 장소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동문은 지난 40년 동안 주



시카고 한인사회 인사들이 임이섭 동문의 전시회를 축하해주고 있다. 임 동문이 시카고 톨슨 센터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로 평화를 위한 작품을 제작해 지난 2009년 9월 시카고 평화박물관에서 ‘평화 아트’ 전시회를 비롯해 2007년 5월 시카고 필드 뮤지엄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 설치 전시회’를 연 바 있다. 또한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 정원 등에서도 전시회를 여는 등 미 전역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공로로 지난 2009년 5월 일리노이 공대(ILT)가 ‘전

문직 성취상 (Professional Achievement Award)을 수여했으며 지난 해 9월에는 시카고 시청 인권정책위원회가 평화의 달 기념 행사에서 Unity Award를 수여하기도 했다. 시카고 시청 인권위원회가 수여하는 Unity Award는 교육·종교·법·의학·정치·예술 등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온 인사에게 주는 상으로 한국인이 받은 것은 임 동문이 처음이다.

애틀랜타 총영사 전해진 동문

37년간 외교관 인생 마무리 이임인사

동문 전해진 애틀랜타 총영사가 지난 8월 5일 이임하면서 37년간의 외교 인생을 애틀랜타에서 마무리했다. 전해진 총영사는 모교 불문과 출신으로 지난 1975년 외교고시에 합격한 이후 줄곧 외교관의 한 길을 걸어왔다. 이임 며칠 전 언론사 기자와 만난 그는 “마지막 해외근무를 애틀랜타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애틀랜타를 앞으로 항상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할 것”이라고 이임의 변을 밝혔다. 다음은 언론사와 일문일답. -외교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아버님이 실랑민 출신이다. 남북통일을 바라는 아버님을 보며 미국·소련과의 외교가 남북통일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당시 상당수 불문과 동기생들이 국제무역 분야에 진출했는데, 그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임지는. “물론 마지막인 애틀랜타, 그리고 첫 해외부임지인 아프리카 가봉이다. 1982년 가봉에 파견됐는데, 한국인 외항선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백방으로 뛰고 고국과 교섭해 월급을 15% 인상하는 선에서 수습했다. 사고로 죽는 선원들도 많았다. 많은 근로자가 외국에 열악한 조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외화를 벌여 조국 발전에 기여

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초임 외교관 시절과 지금의 환경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 “처음 부임 때는 사전교육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부딪히며 좌절하기도 했다. 작은 외교관 숫자로 여러 분야를 담당해야 하는 식이었다.” -애틀랜타에서 3년간은. “2000년대 들면서 한국과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다. 최근 2-3년간 경제위기 때문에 주춤했지만, 애틀랜타가 다시 지력을 발휘한다면 한국과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특히 한인사회가 잘 화합하고 큰 잡음도 없이 총영사로서 고맙게 생각한다. 다주 순회영사를 나가도 공관원을 대접하는 등 한국인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다.” -재외동포 정책은. “30여년 전은 우리 정부가 넉넉치 않다보니 재외동포 지원은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특히 미 동포는 한국의 발전과 영향력 강화에 큰 자산이다. 비록 흠족하지는 않겠지만, 한국정부는 한글학교, 동포단체 지원, 한상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동포지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재외 동포를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앞으로 재외 동포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터너필드에서 열린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경기에서 시범투구한 것이다. 또 1950년대 이민은 재외동포 중 주민등록번호



등 국적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국적을 찾아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애틀랜타 한인들이 나아갈 길은. “동포사회가 미 사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의 훈령으로 조지아·플로리다·앨라배마주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조지아주의 경우 운전면허 관련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 다행히 한국계인 비제이박 주 하원의원이 조지아주 의회에 있다 보니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 나서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처럼 한인이 미국 정치, 경제에 진출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귀임 뒤 외교부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은퇴할 예정이다. 37년 외교인생에서 애틀랜타가 마지막 해외 근무지다. 애틀랜타가 내 인생에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여러분과의 시간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화가 신근식 동문

‘황금의 땅-독도’ 작품 전시회

‘황금의 땅 독도, 그곳에 마을이 있다’ 한국화가 신근식 동문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릿지필드 한양아트네 1&9 갤러리에서 ‘황금의 땅-독도’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가졌다. 오래 전부터 특히 독도를 화폭에 담은 신근식 동문은 한지 위에 동·서양화를 혼용해 화면의 질감과 화려함을 구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한국화의 재료로 닥나무에서 추출한 섬유질을 사용하여 만든 한지 위에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강렬한 필선과 색채로 풍경·인물·자연을 그린다. 잔잔하게 끊어지며, 마치 북판화의 칼선을 보듯 강렬하고 선이 살아 있다. 신 동문은 모교 미대 동양학과를 졸업, 다수의 개인전 및 그룹전을 가졌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최의필(의대 53)동문 상배=시카고 지역 동창회 최의필 동문의 부인 최정희(마리아)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투병하

시다 작고하시어 지난 9월 15일 시카고의 정하상 바오로 한인성당에서 장례 미사. 최의필 동문(Dr. Choi, Eupil) 연락처는 전화 847-566-8158이다.

관악세대/Acro광장

In Vino Veritas 와인 속 진리를 찾아서 & 칼럼

와인을 마시는 이유



이석우(문리 84)
NN USA 대표이사

Wine 애호가 이석우 동문의 와인에 관한 글을 연재한다.

이석우 동문은 인터넷 회사 NN의 미주 법인장으로 'In vino veritas' 라는 제목의 연재를 통해 '와인 100배 즐기는 법' 전수에 나선다.

'In vino veritas' 는 'In wine there is truth' 의 뜻이라고 한다. 참고로 이석우 동문은 영국의 Wine and Spirit Education Trust(WSET)에서 발급하는 Level 2 Intermediate Wine Certificate 을 획득했고 한국 와인아카데미의 와인 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다. <편집자 주>

▶출세위해 와인 시작= 저는 출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10여년 전,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본사의 중역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식사 때 항상 와인을 찾았습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와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알코올 음료와 마찬가지로 와인은 취하기 위해 마시거나, 와이프와 분위기를 잡을 때 마시는 정도였지요.

"미스터 리, 이 식당의 음식에 어울릴만한 와인을 한 병 추천해 주시겠어요?"

본사의 노란머리 중역이 이런 질문이라도 하게 되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와인 이름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는 와인 리스트를 뒤적이지라 맘을 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와인을 배우자. 그래야 높은 분들의 환

심을 살 수 있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를 테니까.

그래서 저는 와인에 관한 책을 다치는 대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와인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와인에 대해 잘 알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와인에 대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한 점들이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카시스 향은 대체 어떤 냄새인가?' '치브리 샹베르랑 마유의 와인들은 어떤 맛이 나기에 남성적이라고 표현할까?' '오래된 와인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질문들은 독서를 통해서서는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감을 통해 느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와인을 다치는 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와인의 매력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와인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전의 저처럼 출세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는 분은 안 계실지 몰라도 독주에 싫증이 났거나, 레드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와인을 마시는 분들이 제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와인을 두 잔씩 드십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데 와인 두 잔을 마시면 신기하게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출세하기 위해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에서 와인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와인이라는 음료가 사람을 기분 좋게 취하도록 만들고 또 맛있기 때문에 찾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밖에 없다면 와인 말고도 위스키나 맥주 또는 소주를 마셔도 되겠지요.

▶와인의 이해= 다른 알코올을 음료들과 달리 와인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모습을 선사해 줍니다.

와인을 이해하려면 포도의 재배와 수확에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



'짜장면' 이 바로 민주주의

민경훈(법대 78)
LA한국일보 논설위원

'베오울프(Beowulf)' 는 영어로 된 최초의 서사시다. 영웅 베오울프가 괴물 그렌델과 그 엄마를 저지하는 이야기인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쓰인 시기는 8세기에서 11세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인데 이 작품을 원문으로 보면 그 사이에 언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시작은 'Hwæt. We Gardena/ in gear-dagum,/ þeodcyniga' 인데 고대 영어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뜻을 짐작할 수 없다.

적역하면 'What. We of the Spear-Danes in old days/ of the people-kings' 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 뒤 수 백년이 지나 중세 영어로 쓴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14세기)를 보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뜻은 대충 분

한다.

각양각색의 순채자들이 캔터베리 성당까지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줄거리인 이 작품은 'Whan that Aprill with his shoures soote,/ The droghte of March hath perced to the roote' 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When the sweet showers of April have pierced to the root the dryness of March).

그 후 다시 수 백년이 흘러 나온 셰익스피어의 '끝이 좋으면 모두 좋다(All's Well That Ends Well)' 의 첫마디는 'In deliuering my sonne from me, I burie a second husband' 다.

이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표준말을 정해도 언어가 변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발음도 달라지고 뜻도 변하고 심지어는 문법까지 바뀐다.

단지 달라질 뿐이지 현대인이 쓰는 언어가 고대인이 쓰는 언어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현재 '사투리' 로 비하되고 있는 말들도 언제든지 표준말로 신문 상송할 수 있다. 사투리가 표준말보다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언어학자들은 언어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0년이 지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1만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언어가 되는 것으로 본다.

영어의 예를 보면 현대 한국인이 신라어나나 백제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고려인과는 손짓 발짓 해가면서 어느 정도 뜻이 통할 것 같고 조선 사람과는 거의 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최근 한국의 국립국어원은 '자장면' 과 함께 '짜장면' 을 표준어로 인정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표준말로 쓰여 왔다는 '괴발개발(개발쇠발)' '끼적거리다(꼬적거리다)' '두루몽술하다(두리몽술하다)' '간질이다(간지럽히다)' '남우세스럽다(남사스럽다)' '쌈싸래하다(쌈싸름하다)' '허섭스레기(허접스레기)' 등을 보면 도대체 누가 그런 표준말을 써왔는지 의아스럽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자장면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결정으로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팔호 안에 든 말도 표준말로 인정받게 됐다. 학자들이 드디어 다수의 의견에 굴복한 것이다. 언어야말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곳이란 생각이 든다.

'자장면' 보다 '짜장면' 이 더 맛있었다(편집자 생각).

이 필요합니다.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신비한 과정이 궁금하면 화학과 미생물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뿌리를 박는 토양이 지역에 따라 다른데 토양에 따라 변하는 와인 맛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질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나무는 아무 지역에서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기후와 지리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와인이 만들어져 온 오랜 과정과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와인 애호가들이 와인 이야기로 밤을 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와인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없는 노릇이고, 누구에게서나 와인에 관해 내가 모르면 사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와인 앞에서는 늘 겸손해지게 됩니다.

▶와인의 매력= 와인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만 종류의 와인들이 존재합니다. 같은 품종의 포도로만 들어도, 만드는 사람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달라 집니다. 이처럼 무수한 와인들이 대해 생산되는데, 매년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와인 또한 일 년마다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와이너리에서 같은 해에 생산된 똑같은 와인을 여러 병 마시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시는 이 와인은 내일 마시게 될 와인, 혹은 내년이나 10년 후에 마시게 될 와인과 다릅니다. 와인은 병속에서도 계속 진화를 하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잔에 따라놓은 와인은 10분 후의 모습과 30분 후의 모습, 혹은 1시간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향과 맛 혹은 질감을 선사해줍니다. 매년 또는 매년 생산될 때마다 일정한 향과 맛을 내도록 만들어지는 맥주나 소주, 양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모습과 변화무쌍함이 와인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와인의 복잡함이나 다양함에 압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에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음료에 불과하니까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소중한 것이 와인입니다.



관악세대/Acro 광장

법창일화<1> 골육상쟁(骨肉相爭)

돈에 갈갈이 찢어지는 열육의 쟁



박준창(인문대 79)

올해로 변호사 생활 22년이 된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를 직업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건들을 접했다. 그러면서 남매지간, 형제지간, 부자지간, 조카-삼촌간, 조카-이모부간, 처남-매부간의 골육상쟁의 경우도 봤다.

‘골육상쟁(骨肉相爭)’이란 글자 그대로 한 몸의 뼈와 살이 서로 싸우는 것으로, 가까운 혈족 사이에 서로 싸우는 것이란다.

그러한 골육상쟁 사건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 한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더 진실되고 실감이 나겠지만 고객보호라는 의무 때문에 원치 않지만 각색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제1화<남매간의 골육상쟁>
한 남매가 있었다. 누나가 먼저 미국에 와서 고생하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가게도 가지고, 먹고 사는 데 걱정은 않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남동생이 이민을 왔다. 남동생도 먹고 살아가 했기에, 누나는 동생을 위해 가게를 또 하나 열어 주었다. 그런데 조금 알뜰한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하면 소득이 많아지므로 세금을 줄이고 싶었다. 그래서 가게를 동생 이름으로 등록을 시켜 주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가게를 운영하던 동생이 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마침내 누나가 가게 명의를 자신의 것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그런데 동생이 완전히 오리발이었다. 가게는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었다.

누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 ‘개xx, 소xx’ 하며 달려 들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방법은 소송 밖에 없었다.

여러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진술서, 기타 증거들을 모아, 동생을 가게에서 쫓아내는 긴급명령부터 신청했다.

그러나, 동생은 누나 돈으로 그 가게를 샀다는 증거가 없고, 자신만이 가게에서 죽도록 일하며, 가게의 가치를 상승시켰지만 누나는 기여한 것이 없다는 방어 논리를 폈다.

판사는 일단 누나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2주 후 정식 청문회를 하자고 했다. 그러나 동생의 방어를 들은 누나는 믿었던 동생이 이렇게 대응하고 나온다는 사실 자체에 낙담했고, 가족들이 중재를 해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소송을 기각하기로 했다.

짜웠으면 충분히 이겼을 사건인데, 누나 입장에서 너무 서글팠는지, 소송은 포기하기로 했다. 소송장 접수 후 2주일도 전에 기각하였으니, 내가 한 소송 중 가장 빨리 끝난 사건 중의 하나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한다.

누나를 원고로, 남동생을 피고로 해서, 내가 준비해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에 접수시킨, 이 사건 긴급명령 신청서의 첫 페이지.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도 많으리라 짐작 되는데, ‘ex parte’ 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서 ‘from [one] party(일방적인)’ 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의 의미이지만, 충분한 통지 기간없이 24시간 전 전화 통고로 하게 되는 긴급 신청을 의미한다.

TRO는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의 줄임말로 ‘임시 제한 명령’으로 번역할 수 있겠고, OSC는 ‘Order To Show Cause’의 줄임말로 신청한 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제시하라는 명령이다.

▶제2화<형제간의 골육상쟁>
이건 한국얘기다. 3형제가 있었다. 맏형은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둘째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3남은 한국에서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님이 돌아 가시면서 3형제

에게 그 회사 지분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고 있었던 맏형이 동생들의 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혼자서 몇 년 동안이나 다 회사 이익을 가져 갔다는 것이었다. 결국 두 동생들이 형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다.

하지만 지독하던 소리를 듣는 형이라 패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져간 이익도 나눠 주지 않고 회사 내에서의 동생들의 위치도 인정해 주지 않았다.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다”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미국에 사는 둘째가 내게 상담을 해왔다.

물론 내가 미국 변호사지만 법의 근본과 상식은 어느 곳이나 같을 것 아니냐며 내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어느 법원이나 1심 판단이 중요하고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1심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쓸쓸함은 가시지 않았다. 이런 것 혹시 우리 동문들은 보지 않고, 받지 않았으면 한다.

소환장(summons)이라고 번역하는데 법원으로 소환/출두하라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고소를 당했으니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소하라는 통지다.

혹시 이런 것 받으면 시간 끌지 말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소송은 누가 무슨 이유로든 할 수 있고, 잘못된 게 없다고 이런 것 받은지 30일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더 큰 봉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3화<부자간의 골육상쟁>

몇 년 전 소송 사건을 해주었던 분이 다시 나를 찾았다. 대뜸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겠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즉, 아내)와 싸고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종업원 임금이 체불되어 죽을 지경인데 아들이 그렇게 돈을 빼돌리니 패썹해도 여간 패썹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내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을 상대로 소송한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 평소에도 알고 있었던 처지라, 어머니와 아들을 불렀다. 관련 회계 서류도 가져 오라고 했다. 물론, 어머니와 아들은 그런 일 없고 매번 계산 정확히 해서 아버지에게 보내주었으며, 다른 망할 것 같은 사업을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패썹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가져온 관련 서류라는 것이 정식 회계서류가 아니고 손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쓴 것이라, 봐도 이해가 안 갔다.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오해였으면, 하고 바랐

동문 시 감상

지하철 안에서

김문자(농가정 63) 시인

초등학생 세명이
내 앞에 섰다

저도요
저도요

손등 위 굽게 솟은 핏줄이
신기했나 보다

여학생 때
하얀 손 등에 푸르게
핏줄이 비친

할머니
한 번 만져봐도 돼요?

친구의 손을 보며
난 왜 안 비치지요?



뭔가 한 차원 높은 것 같아
그 땀 그 손이 부러웠는데

손등 푸른 줄기 위로
아이들 손가락이
꼼질 거린다

다. 분명한 것은 소송 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러 시간을 좀 끌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말했다. 소송을 한들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고 설득했다. 완강한 아버지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 후 전화를 해왔다. 소송은 안 하기로 했단다. 대신 아내와 이혼은 해야 하겠단다. 할 말을 잃어 버렸다.

법에 관한 농담 하나. 이 농담은 오달선사로 널리 알려진 김지영(변호사) 동문님이 2003년도에 출간한 책 ‘Laugh & Learn’에서 발췌했다. 재미있는 농담이 많으므로 사 보시기 바란다.

At the height of a political corruption trial, the prosecutor attacked a witness.

“Isn’t it true that you have accepted five thousand dollars in return for a favor?” The witness stared out the window, as though he hadn’t heard the question.

“Isn’t it true that you accepted five thousand dollars to compromise the bidding?” The prosecutor repeated. The witness still did not respond. Finally, the judge leaned over and said, “Sir, please answer the question.”

“Oh,” the startled witness said, “I thought he was talking to you.”

<한글번역> 정치적 부패 사건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검사가 한 증인에게 다그쳤다. “당신이 특혜를 주는 대신에 5천 달러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증인은 마치 그 질문을 못 들은 것처럼 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입찰에 부정하게 개입하기 위하여 5천 달러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검사가 다시 물었다. 증인은 아직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침내 판사가 (증인석 쪽으로) 몸을 숙이고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오.” “아,” 깜짝 놀란 증인이 말했다. “저는

검사님께서 판사님께 질문하는 줄 알았습니다.” >

▶골육상쟁은 오로지 재물 탓

이 모든 골육상쟁은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인간의 욕심엔 끝이 없는 듯 하다. 이 끝없는 욕심 때문에 남매도, 형제도, 부자의 관계도 무시되는 것이다.

‘무소유’를 법정 스님은 가르쳤지만 물질문명이 발달한 현대의 보통의 사람들은 무소유를 실천할 수가 없다. 무소유는 바로 불편 아니면 고통, 아니면 그 둘 다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휴대 전화기없이 살 수 있는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는가? 컴퓨터없이 살 수 있는가? 자동차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차가 있어야 하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라야 하고 그러면 더 비싼 차라야 한다. 컴퓨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성능의 컴퓨터라야 한다.

그러니 회사를 경영하던 맏형은 가져도 가져도 모자랐을 것이고, 가게를 운영하던 동생은 자신이 가게와 이익금 전부를 가지고 싶었을 것이고, 만약 아들의 횡령이 사실이라면 아들은 늙어가는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았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누나는 누나대로 자신의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더 큰 것을 잃게 될 위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니, 자신의 이름으로 가게를 가지고 동생을 종업원으로 쓰고, 세금 그냥 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세금 줄이려는 작은 욕심 때문에 누나는 동생과 가게 둘 다를 잃을지도 모르게 된 것이다.

역설적으로 우리 형제와 남매는 돈이 없어서 우애가 좋은 경우라고 할까?

적어도 돈 때문에 싸운 일은 없었고 싸울 일이 있을 것 같지도 않으니 말이다. 오히려 어려운 자신의 처지는 절대 숨기고 못 해주어 안달이던 우리 누나들, 형을 보면 무소유가 형제, 자매들간에는 참 행복이 아닌가 싶다.

<그림> 박준창 화백>



관악세대/Acro 광장

인류학 칼럼<1> & 투병기



“Ich bin ein Neandertaler” 한민족의 뿌리에 편견은 없을까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내가 하는 일은 '교양있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쉽게 안주거리로 오르내린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인류학을 합니다.” “고인류학이라면...?” “인류의 진화를 연구해요.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뭐 그런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넋트가 여기저기서 불는다.

“아, 네안데르탈인, 현생 인류에 의해 멸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화석을 보면 네안데르탈인에서 보이는 형질적 특징이 현 유럽인에게서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DNA에서 판명되었다면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결과지 않아요.”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어도 이 정도는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진짜 사실은 이렇다. 전통적으로 고인류학은 화석자료를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화석자료는 네안데르탈과 현 인류가 연결된다는 입장을 더 강하게 받쳐 주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DNA 연구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와 관련없이 멸종한 종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네안데르탈 화석에서 직접 추출한 DNA를 분석해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의 DNA는 서로 다르다고,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전혀 기여할 안했으므로 조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류 화석이 전통적이고 고리타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화석에서 추출한 DNA에 근거한 주장은 영화 ‘주라기 공원’과 같이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환영받았다.

▶인류의 조상= 그런데 2010년에 같은 연구소에서 3억 이상의 염기 서열을 가진 네안데르탈 게놈을 분석한 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네안데르탈인들은 현생인류의 유전자에 기여했으며,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인을 비롯한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학계와 사회반응은 외의다. 네안데르탈인이 현생 인류의 유전자에 기여했다라도 ‘아주 조금’이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쯤되면 구미인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조상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의 정도는 아주 적어서 무시할 정도이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든다.

▶네안데르탈인이 조상은 수처=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네안데르탈인이 조상이면 어떻게 아니면 어떤가? 기근 아닌 수만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지 않다. 자료는 객관적이성인지 모르지만 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주관적 감성이다. 네안데르탈인이 나의 조상이나 아니냐는 구미인들에게는 민족 감정의 문제다. 네안데르탈인이 3만년 전이든 10만년 전이든 내 혈통과 관련됐다는 것이 싫은 것이다. 왜일까?

20세기 초 프랑스 라샤펠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화석은 구부정한 개체였다. 나이와 혈관한 일생으로 관절이 짓눌려져서 그랬던 것인데, 학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부정한 개체로, 맹하게 그려져 그렇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라샤펠 네안데르탈 화석이 발견된 다음 해 런던의 한 신문에 게재된 네안데르탈인 상상은 당시 사람들이 네안데르탈인을 보던 눈을 반영했지만, 게재된 후 사람들은 하여금 네안데르탈인을 특정한 모습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했다.

아직도 영어에서 ‘그들은 네안데르탈이야(He's a Neanderthal)’는 ‘그들은 짐승이야’라는 뜻, 칭찬은 아니다.

▶미개한 원주민= 네안데르탈인이 20세기에 그려진 모습은 동시대에 살면서 유럽에 의해 식민지가 됐던 수많은 ‘미개한 원주민’들의 모습이였다. 우적다짐으로 짐승들을 잡아다가 무식하게 꾸역꾸역 먹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몇 만년을 눈 덮인 동굴 속에서 살아오다가, 멋진 이마와 강한 턱, 고상한 문화와 언어, 그리고 우수한 사냥 기술을 가진 새로운 사람(크로마뇽인, 즉 유럽인의 조상)에게 밀려 멸종한 이야기는 바로 유럽 식민지가 된 덕분에 비로소 문명사회로 발전한 원주민들 이야기와 별로 다르

원쪽 사진은 복경원인의 동상 옆에 선 필자 모습이고 오른쪽은 2010년 네이처(Nature)지에 실린 네안데르탈인 상상도다

지 않았다.

▶독일에서 조상으로 인정= 그런 면에서 네안데르탈 유적이 있는 곳이자, 인종 우생학 등 인종주의의 폐해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을 조상으로 인정하는 움직임은 흥미롭다.

‘Ich bin ein Neandertaler(나는 네안데르탈 사람입니다)’의 로고가 여기저기서 보인다.

1963년 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Ich bin ein Berliner’로 시작한 유명한 연설문에서 따온 어귀다.

내 조상 중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뒤고 싶은 짧은 세대의 발상일 수도 있다. 나는 네안데르탈인을 인종 편견의 눈으로 보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라곤 좋겠다. 그리고 보니, 네안데르탈인의 다양하고 차원적인 문화와 적응양식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인 조상은= 네안데르탈인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조상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한민족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국가에서도, 사계단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국가주의적이고, 다분히 국수주의적이다.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조상을 밝혀 내는 작업이다.

우리도 자랑스러운 조상과 그렇지 않은 조상이 있을까. 우리 조상은 동북아에서 왔는가, 아니면 동남아에서 왔는가. 우리의 민족 감정은 두말할 것 없이 동북아 쪽으로 향한다. 우리는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학교에서 가르쳐 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한민족의 조상이 동남아에서 왔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당장 ‘식민사관’이라는 딱지가 붙을지 모른다. 팔레이지아 등 동남아에서 왔다고 한다면 거부감이 들지도 모른다. 그런 거부감 중 어느 정도가 우리가 현재 동남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인종 편견에서 오는 것일까.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편견을 학문에서 없애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알 아볼 수는 있어야 한다.

암 환자로 행복하게 살기

함께 할 수 있는게 가족의 힘

홍현표(외교 84)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주에 집사람이 장인-장모님과 함께 생선회를 먹은 뒤 속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정밀검사할 해봐야겠다...” 암이라고 했습니다.

간에서 종양 몇 개가 발견됐는데, 대장암이 악화돼 간까지 전이됐다고 합니다. 4기라고 했습니다. 늘 여유가 넘치고 농담을 즐기던 친구는 낮이 나간 듯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수술은 안 되고, 일단 항암치료를 받아 효과가 좋으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눈앞에 닥친 현실이 실감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를 안심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말하는 3기나 4기나, 하는 암의 기수와 10%, 20% 같은 5년 생존율은 수치일 뿐이야. 일단 암을 이긴 사람은 생존율이 무조건 100%가 되는 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찾아보자. 좌절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친구야!”

집으로 돌아가는 친구의 팔걸이를 무거워 보였습니다. 얼마 뒤 그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아내의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변 분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믿기에 약해지지 않겠습니다. 강하게 꼭 이겨내겠습니다. ○○○을 응원하는 남편 올림.”

친구 부부를 위해 기도하는 데 문득 2008년 9월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사로부터 직접 암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아내가 그해 봄에 직장인 일본회사로 발령받아 두 달과 함께 도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텅 비는 듯한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 회사 부서장에게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부장은 뜻밖의 소식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휴대전화 버튼을 눌렀다가 취소하길 반복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형님께만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내에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은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급히 귀국한 아내의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저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참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당시만 해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지난 5월 조선일보 사보(社報)에 그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충격과 걱정보다

는 매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농담처럼 “바람 피우는 건 용서해도 아픈 건 절대 용서 못 한다”고 다짐을 받았는데,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에 걸렸으니...

용종 몇 개 빼내는 것으로 알았다가 뒤늦게 암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시골의 부모님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 자나깨나 제 걱정입니다. 자식에게 될 해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안해하십니다.

“잘 먹고 잘 지내니 걱정 마세요. 100살까지 살 테니...”라며 께께 웃어도 어머님의 걱정은 여전하십니다. 제가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 저는 가족과 친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심적·신체적 고통이야 그동안 몸을 아끼지 않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가족들은 줄지에 제가 저야 할 점을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암 환자 가족들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음식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지,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게 암 환자 가족입니다. 환자가 행여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 함부로 말도 못합니다. 그런 가족을 대하는 환자의 마음도 편할 리 없습니다.

2년간 휴직을 하고 집안 살림을 맡았을 때 아내와 두 딸은 저를 투병 중인 환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처럼 사소한 일로 저와 다투고 반찬부정을 하고 집안 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잔소리 많은 ‘아빠 주부’였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지만 가족들은 거의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 좋은 먹거리에 대한 걱정도 그냥 가볍게 말 한 마디 톡 던지는 걸로 그만이었습니다.

때론 아송하기도 했지만, 암 환자라는 부정적인 생각 없이 제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4월 한 신문에 한광옥 민주당 상임고문 부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폐암에 걸린 한 고문의 부인이 “암 덕분에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더군요. 그런 게 가족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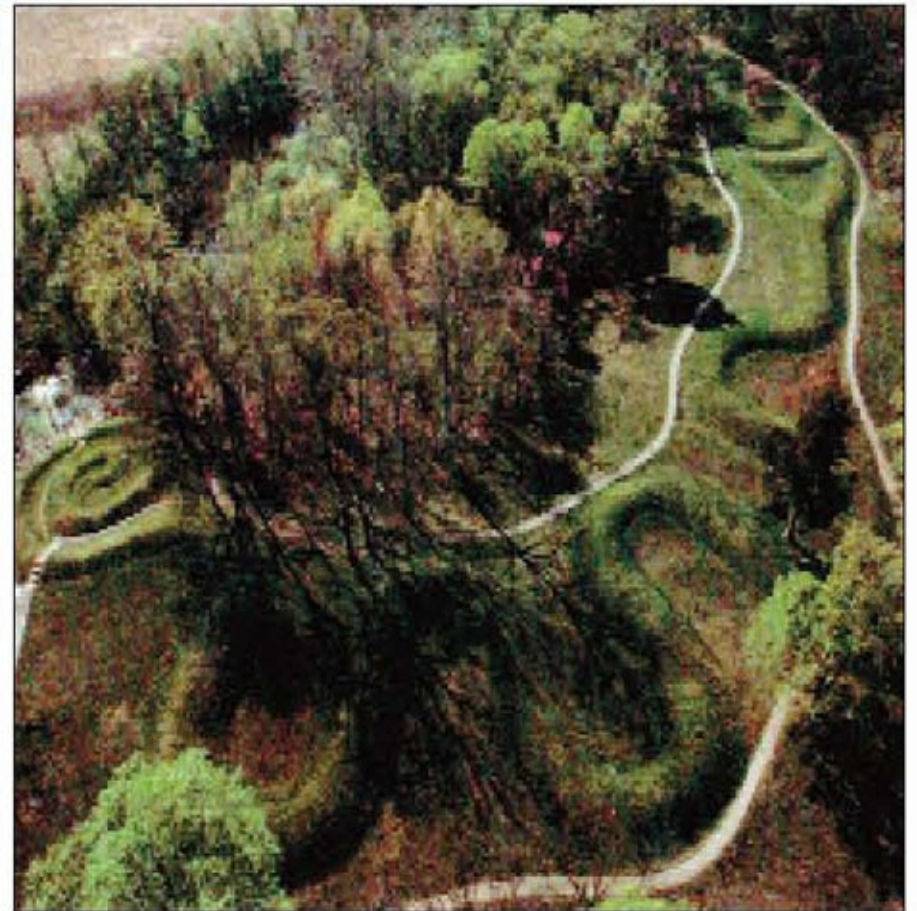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친구 부부가 “암 덕분에 우리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 행복하다”고 말하며 희망찬 삶을 만들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 기자인 홍현표 동문이 신문에 연재하는 본인의 투병기를 전제한 것입니다.)

세계명화 감상<18> 지상미술(Earth Art)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Razel Point, Utah



Serpent Mound, 1070 C.E. Locust Grove, Ohio

자연의 신비와 경이로 찬미한 지상미술

지구작업 · 환경예술 · 설치미술 등으로도 불려



임이섭(미대 54)

이번에는 '지상미술(Earth Art)'을 주제로 하였다. 특정 미술가들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 자연의 신비와 경이를 찬미하며 애정을 갖고 작품화하였는데, 그 위대한 자연과 직접 합작을 시도한 것이다. 지상미술에 대한 개념은 지구작업(Earth Work), 또는 환경예술, 설치미술 등 여러 호칭

으로도 불리고 있다.

그것은 지구 표면을 캔버스로 하여 자유롭게 웅장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우리 주변의 자연을 재발견하고 그 정의와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다.

Robert Smithson, Spiral Jetty, 1970, Razel Point, Utah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호변에 6천여 톤의 자갈을 트럭과 불도저로 부어 넣어 1천500피트 길이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상 미술'이라는 장르의 초기 작품으로 자연과의 합작인 이 작품은 이집트의 '피라미드(Pyramid)'와 영국의 '스톤헨지(Stonehenge)'를 망불하게 하는 거대한 설치 작품이다.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경이와 합

계 인간의 무한한 창작성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작품의 일시적인 시간적 제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Eduardo Chillida, Wind Combs, 1977, 센 세바스티안

바다 물결이 바위에 부딪칠 때 그 강력한 파도는 멋있게 솟아 오른다.

이 작가는 지평선 위의 그 파도의 위력에 매혹되어 강철로 제작한 갈고리 모양의 추상적인 조각으로 그 힘찬 자연과의 협주곡을 시도한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도 '바람을 빗는 빗'이다.

작가 칠리다는 그의 집의 창가에서 바다 위의 자연의 위력과 그 신비를 응시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Christo, The Gate, 2005, 센트럴 공원, 뉴욕

뉴욕의 센트럴 공원은 뉴욕이 그토록 웅장하게 움직이며 숨릴 수 있는 '뉴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불가리아 출신인 크리스토는 파리에서 수학한 미술가로 그의 부인인 진 클라우드와 합작으로 이 공원을 수천 개의 나이론 배너로 포장하고 '뉴욕의 관문'이라는 제목을 붙여 뉴욕 시민들을 아연하게 만든 바 있다.

크리스토는 진 클라우드와 함께 이미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가, 콜로라도의 산 계곡과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비스케인 만을 포장하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그들은 신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예술적으로 대담하게 포장하여 그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고 많은 관중들에게 재감상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작품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은 현대 설치 미술의 진수이기도 하다.

Serpent Mound, 1070 C.E. Locust Grove, Ohio

태초에 지구가 창조된 이래 지상의 산천은 자연 지면과 풍수의 영향으로 바뀌고 변화하여 캐년의 절경을 이루기도 하고, 나이가가라 같은 폭포도 생기기 아름다운 산천을 형성하였다.

또한 인간은 그들의 재능으로 그 자연 속에 예술적인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 거대한 제단을 쌓아 창조주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을 미화하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다.

현대 이전의 유명한 미국의 Earth Work중 하나는 오하이오에 있는 'Serpent Mound'로 알려져 있다.

약 1천년 전에 호프웰 종족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 놓은 것으로 지금도 그 비대한 정원 디자인과 함께 멋진 야의 조각 작품으로 보존되고 있다.

aesoprhim@sbcglobal.net

Christo, The Gate, 2005, 센트럴 공원, 뉴욕



지역 소식

남가주



남가주 총동창회 Bishop Family Camping

“당신 옥시 가짜 서울대 출신 아냐? 아니라면 동창회에 나가서 증명해봐!”

이날 한종철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의 동문 소개 중 하일라이트는 단연코 박현성(공대 69)·박영숙(음대 72) 부부 동문(왼쪽 사진)이었다.

박현성 동문은 “이민생활 25년 됐지만 동창회를 비롯한 어떤 모임에도 그동안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이 모임에 오게 된 사연인 즉 부인으로부터 “얼마전 당신이 가짜 서울대 출신이 아니냐는 전화를 받은 일도 있다. 나도 긴가 민가 하니 이번 기회에 동문회에 나가서 진짜임을 증명해보라”고 메밀어서 나왔다는 것.

그래서 한종철 회장이 농담삼아 유행가 가사처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했으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영혜 전 회장이 “공대 출신으로 동문이 틀림없다”고 증명해주어 가짜스로(?) 출신

성분(?)이 확인된 것.

그러나 서울고에 서울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것은 서울고 동문회에서는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다.

다만 박 동문은 재학시절부터 ‘괴짜’로 통했다고 했다. 서울공대에 다니면서도 주변에다가는 늘 “Y대 상대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부인 박영숙 동문은 “내가 대학원 시절 결혼했는데 그동안 동창회 불참은 물론 졸업앨범조차 보여준 일이 없어 나도 긴가 민가 했다”고 우스갯소리로 맞장구를 쳐주었다.

이에 박현성 동문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더라면 하마터면 ‘혼인빙자 간음’ 뭐 그런 거에 걸릴뻔 했다”고 한 술 더 뜬 너스레를 떨어 동문들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북가주에서 유일하게 온기철(의대 65) 동문이 부인과



함께 참석(오른쪽 사진)했다”고 소개돼 큰 박수를 받았다. 온기철 동문은 “그동안 단과대학 동문회에는 꼬박꼬박 참석했지만 총동창회에는 처음이라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 앞으로는

자주 참가해야 하겠다”고 말해 더욱 힘찬 박수를 받았다. 남가주 총동창회가 이 지역에서 이같은 행사를 처음 실시한 것은 5년 전 김영(수의대 63) 회장 때부터다.

김영 회장은 “이곳 Eastern



Sierra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만큼 Out door 레저의 본고장으로 이곳에서 행사를 하기 전부터 잘 알고 있던 터라 동문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첫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편집주간>

전체 동문이 모일 행사장에서 고용규(의대 67)·김홍서(의대 63) 의대 동창회 회장, 전 회장 부부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다.



준공검사 딱지맛을 부실 텐트 “돌팔매 솜씨는 이럴 때 필요한 거야”

첫날 가족 캠핑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동문 4~5명이 거주할 텐트를 준비한 K동문이 폴대를 깜빡 빠뜨리고 왔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주변 동문들이 부득이 폴대가 없이 텐트를 설치

하는 작업을 도와야 했던 것. 동문들은 끈을 이곳 저곳 나무가지에 연결해 열기설기 텐트를 설치해야 했다.

Two Bed 맨션을 가져와 지으려고 했는데 그만 준공검사에서 딱지 맛을 부실 텐트가 되

폴대가 없어 끈만으로 열기설기 겨우 설치한 텐트주변에 동문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상무(게스트)·김기형(상대 75)·로렌스 한(경대원 79)·백옥자 미주 총동창회 총무국장, 성주경 미주 총동창회 사무총장, 이해영(공대 56), 김창신 남가주 총동창회 총무국장

고 만 것이었다.

김창신 총무국장은 이를 위해 끈에 돌을 달아 던져서 높은 나무가지에 걸리게 하는 등 멋진 솜씨를 발휘했다.

“어릴 때의 돌팔매 솜씨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열기설기 연결된 끈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묘한 음울을 내 신비감을 더했다.

이 모양을 본 미주 총동창회의 성주경 사무총장은 “바로 옆엔 시냇물이 흐르겠다. 게다가 바이올린 소리에 때론 비올라 소리까지 연주되니 캠핑장이 훨씬 더 운치가 있다”고 한 마디.

<편집주간>

지역 소식

뉴욕



골든 클럽

Brooklyn Sheepshead Bay서 낚시 대회

뉴욕 동창회의 '골든 클럽(회장 이준행)'이 지난 8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Brooklyn Sheepshead Bay에서 바다 낚시대회를 가졌다.

허리케인으로 대회 전 주말부터 엄청나게 쏟아지던 소나기도 바로 전 날을 끝으로, 대회를 열던 날은 파랑고 맑은 날씨에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없는, 바다 낚시에는 최상의 기후조건이었다.

이 날 모두 18명의 낚시꾼(?)이 아침 7시에 Captain Dave 선착장에 모여, 이준행 회장께서 주신 특제 멀미약을 복용하고 배에 올랐다.

특히 초보자를 위해 이날 낚시대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철용(농대 57) 동문이 미끼를 끼우는 방법에서부터 고기를 낚아 올리는 방법 등 바다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선장의 안내에 따라 Staten Island, Verrazano Narrows Bridge 근처, 뉴저지 Red Hook까지 옮겨가며 동문들은 각자 2~3 마리에서 10마리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광어를 잡을 수 있었다.

동문들은 큰 고기가 잡힐 때마다 저울로 무게를 비교하여 가벼운 것은 Fillet감으로 돌리면서 중량비교를 계속하여 마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준행 회장(오른쪽)이 25" 광어를 잡은 동문들을 축하해주고 있다. 이날 낚시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우선 시시미 좀 먹고 보자" 동문들이 잡은 광어를 측석에서 회로 만들고 있다. 김창수(동창회보 논설위원·왼쪽) 동문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침내 손경택 사무총장의 광어가 25"로 대어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홍빈 동문은 같은 길이

(25")의 광어를 낚았으나, 중량 비교에서 대어상을 부득이 양보(?)하고 말았다는 후문이다.

이 날 잡은 광어 전체는 회원들이 모두 Fillet을 하여 낚시를 끝내고 헤어질 때는 18명 참가자가 모두 균등하게 나누어 가져갔다.

그 덕분에 아마도 4인 가족이 저녁 한 끼 정도는 싱싱한 광어회를 즐기기에 충분한 사시미감이었다.

낚시대회는 물론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었지만 어느 한 사람도 배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준행 회장께서 미리 특제 멀미약을 제공한 덕분으로 회원 모두가 감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참가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계동휘(치대 67)·김창수(약대 64)·박영건(공대 57)·성기호(약대 57)·손경택(농대 57)·송용길(신대원 69)·이경태(공대 63)·이대영(문리대 64)·이전구(농대 60)·이정국(의대 54)·이준행(공대 48)·이홍빈(의대 57)·정도현(공대 57)·최구진(약대 54)·최철용(농대 57)·한경수(문리대 57)·홍중만(공대 64)·남궁영민(게스트)



Pine Meadow Trail 등산행사 열어

골든 클럽이 지난 8월 31일 17명의 동문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 등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Hiking부터는 기초 등산 그들(A)과 중급 그들(B)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A그룹은 계곡을 따라 빨간표식의 Pine Meadow Trail을 오르코, B그룹은 파란표식의 7 Hills Trail을 따라 서너개의 봉우리를 넘어 Go-Nus-Quah

Rock 맑은계곡에 합류하여 점심을 함께 나누며 송성분 원장의 지도로 신체 유연성 증진 훈련을 했다.

Seven Lake Drive 도로 보수공사로 진입로가 폐쇄되어 우회하는 길을 찾다 보니 예정보다 1시간 지체되어 Visitor Center에서 10시 30분에 출발

하였다.

이 날은 새로 성기로·취구진 동문 회원 부부가 산행에 참여했다.

산행에 앞서 이준행 회장은 인삿말과 함께 "초보자들을 위하여 어렵지 않고 안전한 등산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취구진 회원 부부는 Asolo Hiking Booth, Leki Trekking Pole, 곰 쫓는 피리가 달린 최신행 배낭 등 전문 산악인들의 등산용품들을 구비하여, 장비면에서는 손색없는 등산애호가가가 되었다.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시간여유가 있는 참가자들은 Tappan에 있는 팔이 횃집에서 푸짐한 저녁을 나누며 즐거운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 날 등산 행사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김상준(상대 57)·박영건(공대 57·2)·성기호(약대 57·2)·손경택(농대 57·2)·송용길(신대원 69)·이전구(농대 60)·이준행(공대 48)·임호순(공대 52)·최구진(약대 54·2)·최화주(공대 60)·홍중만(공대 64)·김원영(미대 81)·송성문

지역 소식

시카고·필라델피아·밴쿠버



시카고 동창회

세계적 테너 이용훈 공연 대성황

시카고 동창회가 지난 9월 1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심포니 센터에서 세계적인 테너 이용훈 동문의 독창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오페라계 세계 최정상급 성악가로 잘채받고 있는 테너 이용훈 동문의 목소리가 시카고 한인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날 시카고 다운타운 시카고 심포니 센터에서 열린 테너 이용훈 동문의 독창회에는 2천여명의 관객이 콘서트장을 가득 메웠다.

이용훈 동문과 지휘자 프란체스코 밀로토가 이끄는 '밀레니엄 오케스트라'는 푸치니의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비제의 카르멘 '당신이 내게 던진 이 꽃은' 등 유명 오페라 작품의 아리아와 수록곡을 선보였다.

본 공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

와 함께 무려 세 차례의 커튼콜 무대가 이어져 이용훈 동문은 '신고산 타령' 등의 앵콜곡으로 화답했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 이용훈 동문은 최근 비즈니스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노래를 그만두려 했으나 기도로 이겨냈다는 신앙고백과 함께 눈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 일부 관객들이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다.

테너 이용훈 동문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삶이 바뀌었고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고, 이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힘 모아 어린 후배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무척 벅차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을 관람한 설재섭씨는 "이용훈씨의 대단한 실력은 물론 진솔한 고백에 감동이었다"면서 "주중 다운타운에서 열렸음에도 콘서트 홀을 가

세계 최정상 수준의 테너로 인정받고 있는 이용훈 동문(가운데)이 Chicago Symphony Center에서 Chicago Philharmonic Orchestra에 맞춰 힘차게 공연하고 있다.

득 채울 수 있는 한인들의 저력도 흐뭇하다"고 말했다.

이 콘서트는 시카고 동창회 장학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스폰서와 각 교회 성가대 중심 단체 티켓 판매 등으로 약 2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동창회 김사직 회장은 "2세 후배들에게도 열심히 노력하면 테너 이용훈처럼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싶었다. 서울대 동문들이 오래동안 미국에서 여러가지 산업분야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치하하며, 이번 추석을 마지막으로 이용훈 독창회 날인 9월 1일을 서울대 동문회와 Chicago 교민의 날로 Proclaim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서울대 동문인 우리들 전체가 함께 나눌수 있는 영광의날이며 길이 기억될수 있는 큰 Event였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협력에 감사”



김사직(사진) 시카고 동창회 회장은 지난 9월 1일 테너 이용훈 독창회가 대성황리에 끝난 뒤 한인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사직 회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그리워 하는 마음을 대신하는 행사이자, 후배들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정성이었다"며 "“무식이 용기”라고 당초 로컬 음악인들의 행

사로 기획했던 음악회가 규모가 커졌다. 2014년까지 스케줄이 꽉 잡혀 있던 테너 이용훈 동문과 극적으로 시간을 맞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창회 예산은 8만 달러. 서울대 동창회 사상 최대규모 행사였다. 동창회의 배짱과 동문 및 한인사회의 협력, 운이 합쳐졌다. 독창회 당시 2천 명의 관객이 시카고 심포니 센터를 가득메웠다.

김 회장은 "후배를 돕는다며 박스석을 통째로 사는 동창들 외에 각 교회 성가대와 단체들이 그들티켓을 많이 사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독창회를 통해 얻은 수입은 고스란히 장학 기금으로 모아졌고 11월 말 전달식이 있을 예정이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제1회 가을 예술제에 대거 참가

필라델피아 동창회(회장 주기목·수 68)의 동문들이 지난 17일 이 지역 연합 교회의 비전공 교인들 이 출연하는 제1회 가을 예술제에 대거 출연하고 작품을 출품했다.

이 예술제는 필라 동문회가 지난 해 가을에 가졌던 동호인 예술제와 같은 성격의 축제인데 연합 교회에 다니는 동문 중 주기목 회장을 포함한 11명이 출연하고 출품한 것이다.

이날 미술 전람회는 오후 6시에 개장하고 음악회는 7시에 시작됐다.

<조화연(음대 64)>

밴쿠버 동창회

원로선배 초청의 밤, 장학기금 음악회

밴쿠버 동창회가 '원로선배 초청의 밤'과 '장학기금 마련 동문 음악의 밤' 행사를 가졌다.

▶원로선배 초청의 밤= 추석을 맞아 매년 거행되는 이 행사에 56학번 이전 원로선배 가족 29명에, 초청 후배 27명 가족 등 56명이 모였다.

이날 초청 후배들은 1천580달러를 찬조했는데 최순모·차동철 동문께서는 원로 선배임에도 100달러씩 찬조해주었다. 특히, 곧 거행될 장학기금마련 동문

음악의 밤 행사를 위해 박민철(공대 48)·김영자(약대 52) 부부동문 300, 허종남(상대 54)·조재용(사회대 76)동문 각각 100, 유동성(공대 58)동문 500, 문봉채(공대 80)동문이 200달러를 회사해 주었다.

▶장학기금 동문음악의 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동문 음악의 밤이 18일 오후 7시 밴쿠버의 Oak 스트리트 49번가에 위치한Unitarian Church of Vancouver(949 West 49th Ave., Vancouver)에서 열렸다.

공연 일주일 전까지 4천850달러의 입장권 수입에 11명의 동문이 팝플렛 광고비로 5천950달러, 27명의 동문이 1만670달러를 찬조해주기로 해 이날까지 총 2만1천470의 후원금을 기록했다.

특히 작고하신 최창일(문리대 54) 동문의 미망인께서 500달러를 회사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관악회 골프대회 입상자들이 모두 1천370을 모아주었다.

<재무 남궁영>

여행기

소련붕괴 직후 러시아 방문기<3>

몰락한 강대국이나 천재는 많아



김일훈(의대 51)
동창회보 논설위원

옛날의 영광은 어디로

러시아 관광의 백미는 뭐니 뭐니 해도 세계 제1의 궁전, 사원 그리고 박물관들이며 크렘린이 그 으뜸이다. 고색창연한 크렘린 내 사원 지붕은 항상 금색으로 번쩍거린다.

현 군복의 군인이 사냥매 한 마리를 손에 들고 있다. 이 사냥매는 못새들이 금색지붕을 손상지 못하게 감시하는 파수병 노릇을 한다. 그리고 보니 근처에 새들이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 군인은 매와 함께 사진적으라고 권하며 뿔을 바라보는 눈치였으나 차마 군복입은 자에게 돈을 건네줄 수는 없었다.

러시아에 산재해 있는 사원, 즉 러시아 정(正)교회는 혁명 후 모두가 폐쇄돼 박물관이나 고적지로 전환됐는데 종교가 자유화된 지금 새로 문을 열어 예배보는 곳도 여러 군데 있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는 모든 사원을 교인에게 개방했으나 교인수도 적거니와 건물 수리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 문닫은 곳이 대부분이다.

고을마다 기념비처럼 우뚝 솟은 사원이 있지만 가보면 너무 낡고 심지어 기울어진 곳도 있으며 출입이 금지된 안을 들여다보면 침침한 고물창고 같았다. 제정시대 종교도시로 이름난 놀보크에서 공사중인 사원이 있었는데 그곳 교인들의 현금으로 건물을 재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쭌아(제정러시아)때 국가보조로 유지했던 호화찬란한 사원은 왕족과 귀족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기둥이었다. 러시아 정교는 피곤하고 희망없는 농민을 달래주는 진정제였고 사원은 그들의 위안처였다. 그래서 혁명정부 레닌은 “종교는 아편이다”고 모든 사원을 폐쇄해버린 것이다.

모스크바의 수도원 학교에서는 장차 문을 열 많은 정교회에 대비해 수도사교직자 등 목자를 양성하고 있다. 그곳을 방문했을 때 마침 주일이라 천주교 미사 같은 예배에 참석해 보았다.

신자들 중에는 달리 젊은 세대도 많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하고 호소하는 것 같았다.

백설공주를 연상시키듯이 피

부가 아주 흰 미녀들이 많다. 호텔 로비에서 희디흰 미녀가 있어 자주 쳐다보았다. 물론 의사나 얼굴윤곽을 관찰하는 인류학자 시선으로 보았는데, 여자 쪽에서 이쪽을 보더니 접근해오려는 기색이다. 입장권 관련해 재빨리 다른 곳으로 갔다. 자유의 물결을 타고 이 나라에서 급성장한 것이 매춘과 각종 범죄란다.

러시아 화폐 ‘루블’은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타국인들은 그들 돈과 루블을 교환하지 않으려 든다. 그 이유로 소련 붕괴 후 인플레이가 몇 10배나 올라 내일의 루블 가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료수 살 때나 변소출입할 때 잔돈이 필요해 호텔내 화폐교환소에 갔더니 쉬는 시간이라 문이 잠겨 있었다. 근처에서 눈치보고 있던 러시아 청년이 돈 교환해주겠다고 조른다. 외국돈의 암거래가 곳곳에 성행하고 있으며, 웬만한 상점에서는 달러 지폐를 대환영한다.

크렘린 광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볼쇼이’ 극장 앞 광장에는 행상인들이 진을 치고 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선물부터 외제 상품 등 러시아인을 위한 생활품 파는 암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루블의 종이쪽지화와 암시장의 성행은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한 러시아 경제파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련이라는 역사적 거물의 붕괴는 피를 보지 않고 이뤄졌다고 하나 그 이상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경제파탄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세계제일을 다투었던 초강대국은 스스로의 체제를 청산하고 패전국의 폐허된 땅에 세워진 초라한 암시장을 연상케 하는 원초적인 경제체제로 전략한 격이니 책임이 공산주의 독재정치나 ‘페레스트로이카’ 거나 간에 그 결말은 이렇듯 허무한 것이다.

소련붕괴를 환영했던 다수국민이 원했던 바는 서구적인 유토피아였지 이러한 후진국현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위대한 러시아를 부르짖던 피터대왕이나 레닌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입증하듯, 지난번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국수주의자들이 압승했다. 1차대전 후의 독일의 전철을 밟는다고나 할까!

대제국의 성립과 몰락

지금 러시아는 옛날의 영광을 먹고 살아가는 격이며 그 영광은 러시아 정교(正敎)와 직결된다. 1천년 전 황무지였던 러시아 땅의 ‘슬라브족’은 자연신을 믿고 있었다.

기독교는 기원 1천년대에 그곳에 전파됐으나 러시아인은 내려오는 습관인 약탈결혼과, 다처제(多妻制)를 금지하는 기

독교를 싫어해서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한다.

그러나 그들 지도자는 자연교(샤머니즘)가 미개인의 종교임을 깨닫고 다른 종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회교·유태교·가톨릭교와 회랍정교를 두고 우열을 비교해 보았다. 회교는 러시아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와 술을 금지하고, 유태교는 조국이 없는 자들의 종교에 불과하며, 가톨릭교는 웅장하지 못해 위엄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실격되었다.

결국 호화찬란한 비잔틴 문명을 창조해낸 회랍정교가 가장 적격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회랍정교를 받아들여 러시아 정교국가, 즉 기독교 국가로 거듭났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남아있는 소피아 사원은 그때(11세기) 건립한 것으로 러시아 정교의 요람지로 미개인 러시아인이 최초로 문명과 접목한 곳이라 하겠다.

그러나 서방 문명과 밀월기간은 잠깐이었을 뿐 13세기초 징기스칸(몽고족)의 침략을 받아 259년이란 긴 세월동안 그들은 야만족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살아야만 했다.

몽고족은 중국을 점령해 그들의 종주국(원나라)을 만들고 아시아 대륙과 동구라파 일대를 징기스칸의 자손들이 통치하는 한국(汗國)을 세워 활거렸다. 그들은 폭력으로 99%가 농민인 러시아인을 다스렸으니 이 기나긴 세월 동안 농민들은 반사반생(半死半生)을 강요당했던 것이다.

이러한 몽고인의 장기 지배는 러시아 민족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병적일 정도로 외국을의심하고 겁내는 피해망상과 함께 반작용으로 정복욕과 군사대국 욕망이 몽고지배하에서 이어받은 문화적 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서구라파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꽃다운 ‘인간의 문화’가 만발하던 때인데도 러시아인은 문명세계와 차단된 채 노예생활을 감수했다. 긴 세월 동안 몽고제국은 자체의 내분으로 몰락해 버렸다.

그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다시 러시아 정교국가로 탄생, 17세기초에 로마노프조가 성립됐다. ‘쭌아(CZAR, TSAR)’로 불리는 제정러시아는 ‘귀족의 천국이며 농민의 지옥’이 됐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은 농노(農奴) 곧 노예가 돼 몽고지배 때나 하등 다를 바 없었다. 몽고귀족이 러시아 귀족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러시아의 귀족-지주는 다른 나라와 달라 농민을 농노라 해 사물(私物)로 소유했으며 그것도 지주가 몇 백, 몇 천명을 소유하며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었다. 당시의 신문 광고란에 “순혈종 개 한마리와 16세 소녀를 팝니다” 등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

당시 순혈종의 개는 2천달러, 농노 300달러, 그 딸은 100달러 등의 시세였고, 솜씨 좋은 요리사나 음악인은 800달러 정



피터스버그 교외의 하궁에서 아내와 함께

도였다고 한다. 이 엄청난 비인간적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제한 전제정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정러시아는 존속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악한 사회임에도 그 지배자들의 야망은 항상 영토 확장에 혈안이 됐다.

땅 덩어리 대부분이 동토(凍土)요, 초원과 숲인 쓸모없는 땅인데도 그들의 한없는 욕망으로 시베리아 동쪽 끝까지 정복한 것이 1648년이다. 당시 세계도처에 있던 몽고국(汗國)은 완전소멸하고 몽고족은 인적없는 시베리아 초원에서 유목생활을 하고 있었다.

몽고족은 용맹무쌍한 싸움꾼이지만 세상이 바뀌어 총과 대포를 가진 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들의 종주국 원나라가 망할 때 지배층은 달리고 북녘 시베리아 쪽으로 정처없이 떠나 버렸으니 이를 북귀(北歸)라 일컫는다.

중국은 성격이 거친 몽고족을 개화시키는 수단으로 그들이 불교(라마교)에 귀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다. 라마교승(僧)은 결혼하는 신부에게 첫 성교라는 축복을 주는 초야권(初夜權)을 갖고 있었다. 라마교승은 매독환자가 많아 결과적으로 그들의 특권행사는 몽고족의 인구 억제에 크게 공헌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세균전에 의한 인종멸망 정책이었다.

총과 대포로 무장한 러시아의 교작 기마부대는 몇백명 만으로 시베리아에 산재해 있던 몽고족을 정복해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을 미워하는 몽고족은 러시아에겐 협조적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뒷날 중국이 외몽고 땅을 잃게 되고 소련혁명에 이어 곧 몽고인민공화국을 탄생케 했으니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다시 말을 달리게 된 셈이다.

살벌한 지옥 시베리아는 예나 지금이나 유형지(Gulag Archipelago)였다. 주로 죄인들이 ‘개척인’으로서 그곳에 정착하였다. 지주들은 말을 안듣는 농노를 공갈할 때 “시베리아에 보낸다”고 했으며, 사실 그러했다. 그것도 가족동반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고향에 남긴 처

자를 그리워하며 일생을 마쳤다니, ‘이산가족 정책’은 ‘쭌아’에서 비롯, 북한에 계승됐다고나 할까!

여자가 귀한 시베리아 땅에 황제의 명령으로 모집해서 시집보냈다는 기록도 있다. 그곳에 몽고여인들이 있었지만 매독의심이 많고 해서, 러시아 남자들이 잘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는 역사가 말하듯 죄악덩어리의 나라였다. 레이건의 말마따나 ‘사탄의 나라’였다. 그리고 보니 그들 말로는 처참했다. 최후의 황제 니콜라이는 일가 몰살당하고 시신은 동물처럼 집단무덤 속에 내 버려졌다. 살인마 스탈린은 죽은 뒤 능지처참은 면했지만, 그의 동상들은 모두 파괴되고 철거됐다.

결론을 말하면 러시아는 대국이다. ‘대인물을 낳는다’는 말이 실감나도록 러시아에는 거물급 천재들이 밤하늘의 기라성같이 많다.

정치가 족속들을 그 명단에서 제외시키더라도 19세기 문단의 거성인 톨스토이·토스토예프스키·푸시킨·체홉 등, 대작곡가인 차이코프스키·쇼스타코비치·프로코피야 등, 과학자인 로바체프스키·메치니코프·멘델로프·파블로프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망했다지만 이렇듯 뿌리 깊은 그 땅을 구경하겠다는 희망은 컸었다.

오르막이 높을수록 내리막길이 급하다. 초강대국이었던 그곳에 대한 기대도 개인소득 100달러란 개발도상국가 수준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 들었을 때 놀라움이 너무나 컸었고 허무하기까지 했다. “러시아, 러시아”라고 하는 말은 여행객들의 조소꺼리요 멸시의 대명사가 됐다.

여기서 필자는 과거 한국과 한국인을 보던 외국인의 시각을 생각해 보았다. 또 “이것이 러시아다”하고 자기네 스스로를 비꼬고 비판하기를 주저치 않는 러시아 관광 안내자의 자학적인 언동도 인상 깊었다. 지난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엽전’이라며 업수이 여기지 않았던가.

<끝>

관악세대/Acro광장

베이징 견문록<1> 급성장의 뒤편길



“중국 공산당 전재할 것인가”

정연진(인문대 81)

7월 초 베이징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2박3일 여행은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더불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덩소평이 추진한 개혁-개방 경제정책으로 아시아 다시피 그간 연간 8~10%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2010년도에는 일본 경제 규모를 넘어서 G2에 진입하더니, 급기야 미국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21세기는 중국의 시대’가 될 것’ 또는 ‘미국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예견도 나오면서 아무튼 ‘21세기는 중국이 대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마침 제가 도착한 날은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일이었는데, 10년 후, 20년 후에도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건재할까요? 중국은 과연 세계의 패권을 쥌 수 있을까요?

▶**심각한 환경공해**= 중국은 지금의 고속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시키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짧은 2박3일이었지만 많은 문제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베이징의 공기, 정말 숨이 턱턱 막힙니다.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녁이 되니 운무가 자욱한 밤공기는 매캐한 공해 기운을 잔뜩 품고 있어 눈이 시리다 못해 아리기까지 해서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베이징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공기도 기후도 안 좋다고 미리 일러준 바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세계에서 대기가 가장 오염된 20개 도시 중 16곳이 중국에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조나단 와츠는

최근 저서 ‘When A Billion Chinese Jump(중국없는 세계, 2010)’에서 말합니다. “베이징은 도시의 공기가 너무 나쁜 날이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을 정도였다. 나는 두 딸이 걱정됐고 내 폐도 걱정됐다... 베이징은 숨이 막히는 도시였고 나도 숨이 막혔다. 7년간 베이징에 머물면서 나는 영국이 200년간 겪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빠르게 돌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이지요.

서울도 시내 전기줄이 장난 아니지만 베이징 시내 복잡하게 실린 허공을 가르는 전기줄(윗 사진 중앙)만 보아도 도시 외관엔 아랑곳 없이 중국 경제가 얼마나 단기간에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마오쩌둥**= 1위안짜리부터 5·10·20위안, 50위안, 100위안까지 온통 마오쩌둥(毛澤東)뿐으로 역사 인물도 수도 없이 많을 중국이지만 화폐에 넣어 길이 기릴 영웅이 모택동 한 사람 밖에 없으니. 머니인 지 ‘모니’ 인지요...

마오는 죽었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금성 입구 천안문 광장에도 커다란 초상화가 있고, 시신도 방부처리돼 주석궁에 보관돼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들이 그리도 좋아하는 돈, 인민폐에 살아서 매일 매일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 집권 말기 그가 주도한 문화대혁명은 젊은이(홍위병)들을 동원해 붉은 이념을 강화하면서 많은 전통문화와 지식인들, 지식 기반을 망그려 짓밟고 무너뜨렸습니다.

문화혁명의 광풍이 10년간 중국대륙을 휩쓰는 동안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절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너무도 공부한 것이 없어) 지금 지도층



에서 밀려나 있다는데, 집권 말기 치명적 과오에도 마오는 공산혁명으로 ‘중국을 구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산책중 젊은 여성이 다가와 중국어를 못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전단지를 주며 뭐라고 설명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고 갑니다. 대체 무슨 상품이길래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이리도 집요할까. 보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 황금색 금단지 그림의 투자안내였습니니다. 황금색이 번쩍이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들의 최대목표인 것 같습니다.

▶**24명 황제가 기거한 자금성**= 자금성의 면적은 72만 제곱미터. 흔히들 경복궁은 규모 면에서 자금성에 비해 초라하다고 실망하는 이들도 많다 아입니까. 경복궁의 면적은 42만 제곱미터. 국토면적 대비로 보았을 때 조선의 경복궁이 중국의 자금성에 비해 결코 호락호락한 궁궐의 면적이 아니라예.

자금성은 명나라 영락제가 완성해 명·청대 500여 년에 걸쳐 24명의 황제가 기거한 곳입니다. 자금성 짓는데 무려 100만 명이나 동원됐다니 백성들의 원성도 만만치 않았겠습니니다.

자금성은 자주색을 뜻하는 ‘紫’에 금지를 뜻하는 ‘禁’으로 이름지어졌습니다. 자주색은 옛부터 왕을 뜻하는 색이었고, 금한다는 뜻은 일반 백성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bidden City로 번역됐죠. 벽은 모두 자주색이고 기와지붕은 황금색이었는데 번쩍 번쩍 윤이 나 자세히 보니 온통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뭐니까.

고궁의 벽과 기와 지붕을 페인트로 쓱쓱 바른다는 것은 옛 문화재를 그대로 보존하려는 한국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스타벅스 쫓겨나**= 자금성 안에서는 스타벅스가 있었는데 수백만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자금성 안에 미국을 상징하는 스타벅스가 있다니!” 하고

성토했서 결국 쫓겨났다고 합니다.

▶**자금성내 한국식당**= 자금성 안의 고궁식당 메뉴에는 신기하게도 ‘육개장·계란찜·순두부’ 등 한국음식이 있어 한국의 입맛이 중국인의 입맛을 슬금슬금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니다. 두부 중주국에서 맛으로 승부걸고 한국 기업이 도전하고 있다니, 한국의 힘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견재했습니다.

만주어와 한자가 함께 적혀있는 고궁의 현판입니다(윗사진 오른쪽). 아, 만주어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세히 보면 현판에 부러진 화살이 아직도 박혀 있는데, 뽑아내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고 하는군요. 오랑캐의 침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만주족은 한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자 문명에 동화되어 만주어를 잃어버리고 그들 고유한 문화도 잃어버렸다고 하죠. 현재 중국에는 약 1천만의 만주족들이 있지만 만주어를 쓰는 사람은 극소수의 노인층이라고 합니다.

자금성은 궁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큼니다. 벽 두께도 한국 궁궐 벽의 5~6배는 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궁궐의 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했을까요. 어떠한 적의 침입이 이렇게도 두려웠던 것일까요.

▶**주변 민족은 모두 오랑캐**= 중국은 주변 민족들을 동서남북으로 북적·동이·남만·서융, 이렇게 온통 오랑캐로 분류했는데, 이들 중 단연 동이를 가장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중화사상에서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어한다는 뜻인 사자성이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보면, 유독 동이를 뜻하는 ‘夷’ 자가 두 번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당대 이후로 한족이 세운 나라는 송·명나라 뿐이었고 원·금·청나라 모두 동(북)쪽의 오랑캐들이 세운 나라죠.

자금성의 박물관은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비해 유물이 적은데, 이유는 장제스가 대만으로

후퇴할 때 국민당이 국보급 유물을 왕창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금성은 스스로(自) 절여 잠가 금지된(禁) 성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 관광객들이 보통 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닌데 내부를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니다. 7월초인데도 더위는 살인적이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 넓은 공간에 한 그루의 나무조차 없습니니다. 옛날부터 자객이 침입할까 두려워 나무를 일절 심지 않았다니 나무 하나 없는 궁궐, 이 얼마나 삭막한 궁궐인가요.

현재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92%가 한족입니다. 소수민족은 8% 밖에 되지 않지만, 소수민족의 땅이 중국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나라때 최고 번성기**= 그렇게 번영의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된 것은 청나라 전성기 마지막 황제였던 건륭제의 치적입니다. 강희제·옹정제·건륭제 3대의 황제 치하 134년간 청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중국의 영토가 지금과 같이 방대한 것은 청대 건륭제의 정벌에 의해서입니다. 자금성 박물관에 진열된 청대의 50여 소수민족에 대한 묘사는 한자와 만주어가 병기돼 있습니다.

청나라의 전신은 후금입니다. 후금은 신라의 왕족 후예가 세웠다는 설이 있지요. 그를 뒷받침하듯 청나라 황제들의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함). 만주어로는 아이신제러,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도 황제 부이거 법정에 이름을 말하는 장면에서 ‘아이신제러 부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신라를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한 청의 시조 누르하치가 삼전도 항복 당시 “본래 우리는 고려의 후손으로 그대들과 같은 나라였거늘 어찌하여 동족을 따르지 않고 명나라를 돕는가?”라고 조선왕을 나무랐고 임진왜란이 발발하였을 때는 “부모의 나라를 침략한 죄같은 왜구들을...수장시키겠습니다”라고 했다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 계속 >

CJ김성훈 상무와 함께

CJ 김성훈 상무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개척자다. 20여년 전 삼성의 TV공장 진출부터 현재의 중국 CJ까지 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한 예로 현재 연매출 1조원이 넘는 CJ홈쇼핑이 중국에서 이런 성공에 김상무의 공이 절대적이었다. 빼어난 중국어 실력과 지략, 중국인의 신뢰를 얻는 사업방식으로 한국기업들의 중국 시장 안착에 빛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김상무가 중국인 인줄 알고 다가와 “언제 그렇게 한국말을 배웠어요?”라고 한다고.



명·청대 500여년에 걸쳐 24명의 황제가 기거했던 자금성은 면적이 72만 평방미터로 세계 최대의 궁궐이다. 그러나 나무 한 그루도 심어져 있지 않아 삭막하기 이를 데 없다.

기 고

칼럼

“대국 USA의 민주정치를 살피며”



김기태(문리 55)

자기 자신보다는 당이 더 중요하고, 당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함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한다.

하나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을 포함한 서양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지 않나 고민해본다.

그러다가 지난 2001년 9.11테러를 당했을 때, 나는 미국 사람들의 애국심과 이타심을 보았고 높이 찬양했다.

WTC Twin Buildings이 화염에 싸였는데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물론, 많은 시민들까지 개미떼처럼 줄을 지어 뛰어 들어 갔다.

그 큰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3천 명에 가까운 대부분은

사망되었지만, 그 희생(2천753명 사망)은 얼마나 고귀하고 명예스러운지 우리 시민들이 흘리는 슬픈 눈물로 다하지 못했다.

평시에는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같아도 위기에 닥치면 보다 더 큰 것을 위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엄청난 용기와 애국심 앞에 저희들은 고개 숙여 탐복하였소이다.

미국이 힘에 겨워 좀 쉬겠다면, 세계 평화란 배낭을 걸머지고 대행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바톤을 이어 받을 만한 나라가 없으면 미국이 더 강건해져 오래 오래 지속할 방법은 없겠나 고민해 본다.

첫째로, 재정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자.

지난 2011년 6월 말 미국의 빚이 \$15 trillion으로 추정되 debt/GDP ratio가 위험선으로 간주되는 90%를 훨씬 넘어 96%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보니 S&P로부터 호되게 얻어맞아 AAA에서 AA+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까, 걱정중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힘을 합쳐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돈 나눌 수 있는 곳은 부자들의 호

주머니 속에서다.

미안하지만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 특별 비상금으로 비치해야 한다. 이 자금의 일부는 빚을 갚는데 보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장부 Warren Buffett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 국가의 위기를 구해야 한다”고 옳은 말을 했다. 국가가 힘이 커지면 부자는 수익이 더 커질 것이고, 전 국민을 잘 먹여 더 잘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민투표(Vote)를 잘 분석해 볼 때가 된 듯 싶다. 1789년 프랑스 민주혁명 때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그 제1조에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이 평등의 원칙은 민주정치에 중요한 바탕인 투표의 가치에도 동등했으리라.

머리가 똑찬 현철과 텅빈 천민의 투표 한 장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Quantify하기는 대단히 힘들 뿐 아니라 위험하다.

하나 여기서 한 예를 들어 양적 시도를 시험적으로 감행해 본다.

전 시민은 기본적으로 표 하나, 교육수준에 따라 최고 한



표 추가, 초등학교 줄 0.10, 중졸 0.20, 고졸 0.35, 대졸 0.65, 석사 0.80, 박사 1.00, 또 부력(Tax Bracket)에 따라 최고 한 표 추가. Zero Tax: 0.00, 10-25%: 0.20, 26-30%: 0.50, 31-35%: 0.75, 36-40%+: 1.00로 Quantify해본다.

하여 시민들은 한 표에서 3표까지 가질 수 있고, Hegel's Dialectic(변증법)의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무수한 개선의 역사를 거쳐 Absolute Spirit(절대사상)에 접근될 것이다.

이 개선의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나 불가능한 길은 아니니, 곧고 청빈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조심 조심 시행해 좋은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Theocracy는 Religion종교 정치, Timocracy는 Honor 현자 정치, Plutocracy는 Wealthy 부자 정치에 비해, 만민이 평등하게 참정할 수 있는 멋진 Democracy는 People민중의 정치로, 혹 Majority Fool로 우중정치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 우려해 제안한다.

<지질학 Ph.D.>



대한민국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Los Angeles Chapter

3240 Wilshire Boulevard, Suite 280,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Tel. (213) 384-6919, Fax. (213) 384-6945 www.lapyungtong.com·nuac.la@gmail.com

김현욱 수석부의장 배 통일활동 기금모금 골프대회 초청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소통·상생·공영·화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금모금 ‘김현욱 수석 부의장 배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모든 동포들과 그리고 모든 단체가 친목으로 소통한 후 화합의 힘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야심찬 목적을 바탕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부디 오셔서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PM 2:30 Shot Gun (AM 11:00 Head Count Open)
- ▶장 소 : California Country Club(C.C.C)
- ▶참가비 : \$100:00 (Payable to UKARF) 비영리단체 Tax ID : 95-4451655

대회 명예 대회장 : 정진철 대회장 : 홍명기

동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회장 최 재 현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국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행사 · 부음

수상

▲朴宇熙(경제54-58 세종대 총장)=최근 캄보디아 차르르대학과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사하메트레이 훈장.
▲崔洋夫(농경제64-68 前駐아르헨티나 대사)=7월 28일 아르헨티나 정부 최고 훈장인 '대십자 건국훈장'.

▲李吉成(토목공학66-70 모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9월 16일 제5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吳生根(불문66-70 모교 불문학과 교수)=9월 16일 제5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玄在賢(법학67-71 동아그룹 회장·한미재단 회장의 위원장)=7월 19일 미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2011년 벤플리츠상 수상.

▲徐世源(화학69-73 모교 화학부 교수)=9월 16일 제56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李秀滿(농공학71-78 SM엔터테인먼트 회장)=7월 26일 한국대중음악(K-POP) 가요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패.

▲崔景煥(작곡72-80 모교 기악과 교수·퍼커니스트)=6월 27일 한국음악평론가협회로부터 제27회 서울음악대상 수상.

▲金聖秀(대학원77졸 연합뉴스 편집장)=6월 9일 한국언론인연합회로부터 제7회 한국 참언론인 대상(글로벌미디어부문).

▲金鶴鶴(회화73-80 세종대 교수)=11월 10일 조선일보 주최 제23회 李仲燮 미술상.

▲朴贊勝(국사75-79 한양대 교수)=6월 9일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한길사에서 제24회 단재상.

▲金旼日(불어 교육 77-81 조선일보 논설위원)=7월 1일 한국유럽학회 제1회 유럽인론인 대상.

▲李容德(조소 77-82 모교 조소과 교수)=6월 24일 재단법인 김세중기념사업회에서 제25회 김세중 조각상.

▲李贊根(대학원82졸 인천대 교수)=7월 15일 제29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
▲盧泰元(물리82졸 모교 물리천문학과 교수)=7월 5일 과학기술연차대회 개최식에서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裴明福(불문79-83 중앙일보 논설위원)=7월 1일 한국유럽학회 제1회 유럽인론인 대상.

▲徐廷禧(무역 81-85 매일경제신문 경제부장)=7월 1일 한국유럽학회 제1회 유럽인론인 대상.

▲朴舜浩(AMP 43기 세정그룹 회장)=5월 31일 제7회 한국사회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朴興植(AMP 7기 신원 사장)=6월 1일 제18회 三聖堂(文益漸) 대한민국 섬유패션 대상.

▲朴昌圭(AMP 2기 롯데건설 사장)=6월 1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 수훈.

인사

▲金南辰(행정51-55 前고려대 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7월 20일 한국행정학회 법정이사로서 제2대 이사에 선임.

▲이홍석(농학52-56 모교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7월 8일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趙成浩(물리54-58 고려대 명예교수)=7월 8일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朴鍾圭(정치55-61 KSS 해운 고문)=7월 7일 사단법인 한국상륙회로부터 제19회 인간상륙수로 추대.

▲尹鍾龍(전자공학62-66 삼성전자 상임고문)=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

▲張浩完(지질 과학 62-69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7월 8일 대한민국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崔熙助(정치63-71 前문화일보 편집장)=최근 세종대 석좌교수로 선임돼 9월부터 '사회와 가치' 강의.

▲高哲煥(식물65-69 모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7월 11일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FOMSEA) 총회서 집행위원회 전문분과 부의장에 선출.

▲朴明珍(불문65-69 모교 교육부총장·본보 논설위원)=7월 12일 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에 취임.

▲高健(응용물리67-74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7월 26일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이사회서 전주대 제12대 총장 내정.

▲李仁晟(조선공학68-72 SIX조선해양 부회장)=7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한·판관드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卞相慶(해양68-72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6월 29일 프랑스 파리 국제해양기구(IOC) 총회서 의장에 선출.

▲金炳基(철학74졸 前삼성경제연구소 사장·모교 산업공학과 객원교수)=6월 24일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鄭俊陽(공업교육75졸 포스코 회장·다문화가족포럼 공동대표)=6월 27일 한국공학한림원 총회서 회장에 선출.

▲金辰圭(의학70-76 건국대 총장)=7월 22일 미국 LA 퍼시픽스테이즈대(PSU) 총장(겸임)에 취임.

▲金瑞浩(행정71-75 자본시장연구원 고문 겸 초빙위원)=8월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취임.

▲朴五錫(화학공학 72-76 KAIST 교수)=6월 15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부총장에 임명.

▲禹孝燮(토목공학 72-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선임.

▲權在珍(법학72-76 前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7월 15일 법무부장관내정.

▲李東植(영어교육72-76 KBS 정책기획본부장·본보 논설위원)=7월 11일 KBS 비즈니스 감사에 선임.

▲崔昌坤(기계공학 73-77 前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7월 18일 국방기술평가원 제21대 원장 취임.

▲朴明潤(보대원74-76 국제문화대 석좌교수·관악회 이사)=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민족화합위원장에 임명.

▲金徹洙(무역74-78 前부 산세관장·관세청 통관지원국장)=6월 8일 관세청 차장에 임명.

▲尹漢哲(잠사74-81 농협중앙회 상무)=7월 21일 농협중앙회 정보기술본부 본부장(CIO)에 선임.

▲嚴賢澤(사회 75-79 대한산업안전협회장)=6월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禹基鍾(경영75-79 기획재정부 녹색성장기획단장)=7월 27일 통계청장에 임명.

▲趙允烈(법학75-79 前駐스페인 대사)=6월 15일 신설된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에 임명.

▲金炳澈(동양사학76-80 前감사원 제정금융국장·제1사무차장)=7월 22일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

▲周英燮(사회 교육 76-80 前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세계실장)=7월 27일 관세청장에 임명.

▲車國憲(화학공학81졸 모교 화학물공학부 교수)=최근 한국인 최초로 독일 구텐베르크 석학회원에 선정.

▲吳定圭(경영77-81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6월 6일 농수산식품부 제2차관 임명.

▲尹鍾洙(영문82졸 前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환경정책실장)=7월 27일 환경부 차관에 임명.

▲洪正基(법학78-82 前감사원 기획관리실장·제2사무차장)=7월 22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

▲李在仁(교육82졸 여상가족부 여성정책국장)=6월 9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에 임명.

▲李相吉(사회 교육 78-82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7월 27일 농수산식품부 제1차관 임명.

▲姜南薰(무역 79-83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 자원개발정책관)=6월 9일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에 임명.

▲姜昇哲(자원공학79-83 前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7월 12일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에 취임.

▲余顯星(가정관리83졸 모교 소비자운동학부 교수)=7월 6일 아시아소비자경제학회 회장에 선출.

▲權寧奎(행정80-83 서울시 행정1부시장)=6월 9일 자치단체국제환경회의 집행위원

에 선출.
▲金英豪(사회교육80-84 前감사원 공보관·재정경제감사국장)=7월 22일 감사원 기획관리실장에 임명.

▲李基權(행정81-83 前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6월 6일 고용부 차관에 임명.

▲李相勳(성악80-84 前성남시립합창단 지휘자·성결대 교수)=7월 13일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에 임명.

▲金泰碩(행정81-8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6월 6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임명.

▲李石淵(대학원 81-91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7월 12일 아시아기자협회 부이사장에 취임.

▲崔載海(행정84-86 前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기획관리실장)=7월 22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임명.

▲鄭彰鎬(사법85-89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8월 1일 유엔 재판관에 임명돼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 파견.

▲金知永(고고미술사학 88-92 前매일경제신문 차장)=최근 한국언론 홍보담당 이사에 선임.

▲朴鐵坤(AMP 60기 前국무총리실 국무차장)=6월 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취임.

▲宣洵濟(ACAD 39기 前육군 참모차장·예비역 육군중장)=7월 18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에 임명.

▲朴容煥(AIP 39기 前라공조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6월 1일 한라공조 사장 선임.

▲丁煥守(AMP 15기 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7월 13일 기업은행 경영전략본부장에 선임.

▲李元昌(OLP 8기 前경향신문 경영본부장·前국회의원)=7월 13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 임명.

▲權赫赫(의학41-4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총재)=7월 5일 예술의전당서 서울내셔널 심포니오케스트라와 공동으로 결핵퇴치 기금 마련 콘서트 개최.

▲金鍾憲(경제55-59 서해안문화연구소 회장·濯纓 金顯孫선생기념사업회 회장)=7월 9일 충남서산시 청암죽림제당서 탁영 김일손 선생 추모 기념 절의충절과 선비정신 세미나.

▲金弘經(법학63-67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한국항공소년단 총재)=7월 20일 미국·영국·호주·터키·네덜란드 국제항공소년단원 초청 국제항공소년단 한국캠프 개최.

▲權武一(철학64-68 前국제조명 사장·소설가)=7월 20일 남이 장군의 생애의 역사소설 '남이(명민사기)' 출간.

▲南榮佑(지리교 육68-75 고려대 교수)=7월 15일 조선 말부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법문사刊)' 출간.

▲禹漢鎔(국어교육68-75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7월 29일 모교서 '연구윤리의 확산과 연구문화 정치'를 주제로 포럼.

▲成榮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헌법통일법제정장)=7월 28일 모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서 학술대회 개최.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7월 28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포럼.

▲薛禾英(응용미술 74-79 화가)=8월 31-9월 6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3전시관에서 유화 개인전.

▲權東一(금속공학 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한국법공학연구회 회장)=6월 23일 모교에서 법공학연구단체인 한국법공학연구회 발족식.

▲洪準亨(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7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서 제헌 6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김세희(기악98-02 첼리스트)=8월 8일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브람스, 쇼스타코비치 등 작품 첼로 독주회.

▲金再奎(의학81-87 중앙대 교수)=7월 11일 영국 국제인명명센터(IBC)의 '2011 전문 의학자 100인' 과 미 마르퀴즈 후즈 후의 '2012 마르퀴즈 후즈 후 아시아판'에 동시 등재.

▲金景愛(동양화83-87 형색인 회원)=8월 1~12일 서울 관훈동 대성 업드림 갤러리에서 전시회.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99-03 영화감독)=7월 11일 서울 코엑스점서 영화 '고지전' 시사회 개최.

▲李興九(교육46-52 前숙명여대 교수)=7월 16일 별세(86세).

▲林鎮男(화학공학48-50 한양대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6세).

▲姜吉云(국문48-54 前수원대 교수)=7월 8일 별세(88세).

▲張和子(독문51-55 힐데갈드 수녀)=7월 9일 별세(79세).

▲崔泳一(수의학52-56 前색동회장)=7월 13일 별세(78세).

▲金圭甲(토목공학57-61 협성실업 회장)=7월 7일 별세(80세).

▲金南松(체육교육58-63 前서울체고 교장)=7월 11일 별세(72세).

▲朴鍾大(조소62-67 군산대 교수)=7월 1일 별세(69세).

▲鄭貴來(미학63-67 前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7월 7일 별세(68세).

▲鄭康煥(섬유공학68졸 태일정밀 사장)=7월 12일 별세(66세).

▲申光鉉(영문80-84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7월 24일 별세(60세).

▲朴梓源(의학87-93 가천의대 교수)=7월 14일 별세(44세).

▲金哲(ACAD 45기 前국회의원)=7월 15일 별세(66세).

▲權武一(철학64-68 前국제조명 사장·소설가)=7월 20일 남이 장군의 생애의 역사소설 '남이(명민사기)' 출간.

▲南榮佑(지리교 육68-75 고려대 교수)=7월 15일 조선 말부터 일제 참모본부 간첩대에 의한 '일제의 한반도 측량침략사(법문사刊)' 출간.

▲禹漢鎔(국어교육68-75 모교 국어교육과 교수·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장)=7월 29일 모교서 '연구윤리의 확산과 연구문화 정치'를 주제로 포럼.

▲成榮寅(행정69-73 모교 법학부 교수·헌법통일법제정장)=7월 28일 모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서 학술대회 개최.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교수·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7월 28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포럼.

▲薛禾英(응용미술 74-79 화가)=8월 31-9월 6일 서울 경인미술관 제3전시관에서 유화 개인전.

▲權東一(금속공학 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한국법공학연구회 회장)=6월 23일 모교에서 법공학연구단체인 한국법공학연구회 발족식.

▲洪準亨(법학75-79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7월 15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서 제헌 63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김세희(기악98-02 첼리스트)=8월 8일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브람스, 쇼스타코비치 등 작품 첼로 독주회.

▲金再奎(의학81-87 중앙대 교수)=7월 11일 영국 국제인명명센터(IBC)의 '2011 전문 의학자 100인' 과 미 마르퀴즈 후즈 후의 '2012 마르퀴즈 후즈 후 아시아판'에 동시 등재.

▲金景愛(동양화83-87 형색인 회원)=8월 1~12일 서울 관훈동 대성 업드림 갤러리에서 전시회.

▲張亨碩(일명 장훈·디자인99-03 영화감독)=7월 11일 서울 코엑스점서 영화 '고지전' 시사회 개최.

▲李興九(교육46-52 前숙명여대 교수)=7월 16일 별세(86세).

▲林鎮男(화학공학48-50 한양대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6세).

▲姜吉云(국문48-54 前수원대 교수)=7월 8일 별세(88세).

▲張和子(독문51-55 힐데갈드 수녀)=7월 9일 별세(79세).

▲崔泳一(수의학52-56 前색동회장)=7월 13일 별세(78세).

▲金圭甲(토목공학57-61 협성실업 회장)=7월 7일 별세(80세).

▲金南松(체육교육58-63 前서울체고 교장)=7월 11일 별세(72세).

▲朴鍾大(조소62-67 군산대 교수)=7월 1일 별세(69세).

▲鄭貴來(미학63-67 前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7월 7일 별세(68세).

▲鄭康煥(섬유공학68졸 태일정밀 사장)=7월 12일 별세(66세).

▲申光鉉(영문80-84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7월 24일 별세(60세).

▲朴梓源(의학87-93 가천의대 교수)=7월 14일 별세(44세).

▲金哲(ACAD 45기 前국회의원)=7월 15일 별세(66세).

▲李興九(교육46-52 前숙명여대 교수)=7월 16일 별세(86세).

▲林鎮男(화학공학48-50 한양대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6세).

▲姜吉云(국문48-54 前수원대 교수)=7월 8일 별세(88세).

▲張和子(독문51-55 힐데갈드 수녀)=7월 9일 별세(79세).

▲崔泳一(수의학52-56 前색동회장)=7월 13일 별세(78세).

▲金圭甲(토목공학57-61 협성실업 회장)=7월 7일 별세(80세).

▲金南松(체육교육58-63 前서울체고 교장)=7월 11일 별세(72세).

▲朴鍾大(조소62-67 군산대 교수)=7월 1일 별세(69세).

▲鄭貴來(미학63-67 前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7월 7일 별세(68세).

▲鄭康煥(섬유공학68졸 태일정밀 사장)=7월 12일 별세(66세).

▲申光鉉(영문80-84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7월 24일 별세(60세).

▲朴梓源(의학87-93 가천의대 교수)=7월 14일 별세(44세).

▲金哲(ACAD 45기 前국회의원)=7월 15일 별세(66세).

행사

참가 명부를 받습니다

▲李興九(교육46-52 前숙명여대 교수)=7월 16일 별세(86세).
▲林鎮男(화학공학48-50 한양대 명예교수)=7월 9일 별세(86세).
▲姜吉云(국문48-54 前수원대 교수)=7월 8일 별세(88세).
▲張和子(독문51-55 힐데갈드 수녀)=7월 9일 별세(79세).
▲崔泳一(수의학52-56 前색동회장)=7월 13일 별세(78세).
▲金圭甲(토목공학57-61 협성실업 회장)=7월 7일 별세(80세).
▲金南松(체육교육58-63 前서울체고 교장)=7월 11일 별세(72세).
▲朴鍾大(조소62-67 군산대 교수)=7월 1일 별세(69세).
▲鄭貴來(미학63-67 前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7월 7일 별세(68세).
▲鄭康煥(섬유공학68졸 태일정밀 사장)=7월 12일 별세(66세).
▲申光鉉(영문80-84 모교 영어영문학과 교수)=7월 24일 별세(60세).
▲朴梓源(의학87-93 가천의대 교수)=7월 14일 별세(44세).
▲金哲(ACAD 45기 前국회의원)=7월 15일 별세(66세).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1년 7월1일~9월 22일까지)

2011년 동창회비

California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권기상(경영 72)
권길상(음대 45)
김병호(상대 57)
김성철(법대 54)
김지익(의대 45)
김창무김애인(음대)
나두섭(의대 66)
노명호(공대 61)
류대섭(공대 54)
문덕수(공대 73)
문병하(법대 51)
문인일(공대 51)
박경화(문리 46)
박의순(상대 53)
박은숙(미대 62)
박취서(약대 60)
박현숙(사대 54)
박홍근(공대 64)
백옥자(음대 71)
서병선(음대 65)
신대식(상대 60)
양성문(공대 65)
엄동해(농대 74)
이상문(의대 54)
이선화(미대 83)
이영진(간호 77)
이의덕(대원 71)
이재권(법대 56)
이종표(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희영(의대)
임용오(의대 59)
정동석(공대 57)
정태무(사대 44)
조동준(의대 57)
조중웅(공대 45)
조태균
차종환(사대 54)
최승룡(상대 53)
최영순(간호 69)
한종철(치대 62)
한효동(공대 58)
Chicago
김계균(공대 60)
고병철(법대 55)
최애옥(간호 47)
Minnesota
박인영(의대 69)
왕규현(의대 56)
하계현(공대 64)
Michigan
오상현(의대 65)
New Jersey
박성일(상대 58)
박진우(상대 77)
배명애(간호 49)
선우문혜(약대59)
선우치민(약대48)
윤준식(법대 58)
이능석(의대 57)
이중환(법대 51)
최준희(의대 58)
New York

방준재(의대 63)
서병선(음대 65)
윤영섭(의대 57)
이병무(법대 57)
최석진(사대 54)
한용진(미대 56)
Ohio
박 철(사대 55)
송용재(의대 63)
최인갑(공대 57)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최동근(문리 50)
Philadelphia
송영두(의대 56)
이기범(의대 56)
이만택(의대 52)
정정수(의대 56)
주기복(수의 68)
Texas
김정훈(공대 46)
김훈목(사대 58)
이규진(약대 60)
탁순덕(사대 57)
Utah
정석화(공대 66)
N. Carolina
조동림(의대 52)
Maryland
도상철(의대 63)
이재승(의대 55)
Washington
박진수(의대 58)
이영목(공대 59)

2012년 동창회비

New Jersey
박성일(상대 58)

Ohio
최인갑(공대 57)

일본광고비및업소록

듀오 250
월서은행 1,000
나라은행 400
Nexen Tire 1,000

California
김재영(농대 62) 120
노명호(공대 61) 200
신대식(상대 60) 120

New England
윤상래(수의 62)100

Philadelphia
서중민(공대 64) 100

관악후원회비

California
백옥자(음대 71)200
엄동해(농대 74)1,000
Chicago
김계균(공대 60) 200
Minnesota
왕규현(의대 56) 200

Ohio
최인갑(공대57)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225
Philadelphia
이기범(의대 56) 200
이만택(의대 52) 200

정정수(의대 56) 200
주기복(수의 68) 200
Utah
정석화(공대 66) 200
Texas
김정훈(공대 46)200
Washington
이영목(공대 59) 200

“Home Coming Day + 고국 관광을 합니다”

모교 서울대학교는 10월 15일 개교일을 맞아 16일 제32회 ‘Home Coming Day’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이날 관악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기념식과 더불어 서울대 뒷동산에서 온 가족 등반대회가 개최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에서는 이번 행사에 미주 동문들이 참여해 자리를 더욱 빛내려 합니다.

그 일정에 따라, 10월 16일 등반대회 행사를 마치고 미주 여러 동문님들과 함께 고국의 중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LA에 소재하는 ‘US 아주 Tour(213-388-4000)’ 가 안내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주 여러 동문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LA출발일 : 2011년 10월 13(목)

▶모교방문 : 2011년 10월 16(일) 오전 9시

▶여행출발 : 2011년 10월 17(월)

▶일 정 : 서해-남해-제주/ 7일

▶가 격 : 1인당 \$1,599 + Tax (지역에 따라 변동이 있음)

▶문 의 : 미주 동창회 백옥자 총무국장
(Tel 818-225-8411), US 아주 Tour
박광식 회장(담당 Jennifer Tel 213-388-4000)

◆17일(전주-담양-목포)= 전주로 이동.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천년 전주의 랜드마크 전주 한옥마을(경지전) 관광.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나 대나무의 고장 담양 죽녹원에서 삼남육 체험후 목포로 이동. 식사는 전주비빔밥(중식), 남도한정식(석식). 유달산에서 아름다운 다도해 조망후 석식및 호텔 체크인 호텔은 목포 현대호텔 또는 동급.



◆18일(목포-보성-순천-광양)= 초록빛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대한다원 보성녹차밭 관광. 순천만 자연생태관 관광. 아름다운 순천만 갈대밭 관광. 순천만 용산전망대에서 일몰 조망 식사는 호텔뷔페(조식), 팔진미정식(중식), 광양불고기(석식). 호텔 체크인은 광양 필레모 호텔 또는 동급.



◆19일(광양-진주-거제-거가대교-창원)= 논개의 영혼이 깃든 진주성(촉석루) 관람. 거제도도로 이동. 한려 해상 국립공원 관광. 포로수용소 관광. 세계 최저수심 해저 침매터널과 아름다운 해상 교각으로 이루어진 거가 대교를 지나 창원으로 이동. <선택관광>= 외도 유람선(US\$30.P p/p). 식사는 호텔뷔페(조식), 장어불고기(중식), 갈비탕(석식). 호텔은 창원 풀만 엠베서더 호텔 또는 이와 동급.



◆20일(창원-김해-제주)= 김포공항 탑승수속 후 출발. 제주공항 도착 및 가이드 미팅후 중식. 옛 추억을 회상하는 선녀와 나무꾼 관광. 옛 제주의 의식주가 전시된 민속 자연사박물관. 신비의 도로(도깨비도로) 관광. 산방산 (or 용머리해안), 주상절리대(육각형 돌기둥) 관광. 식사는 호텔뷔페(조식), 한정식(중식), 옥돔구이(석식). 호텔은 제주 신라호텔 또는 이와 동급.
www.shilla.net/jeju



◆21일(제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천지연 폭포 관광. 제주 농민들의 노력의 결실현장 화산석대마공원 견학. 생각하는 정원 분재예술원 관람. 올길(화순꽃자왓 걷기) <선택관광>= 현지상황에 따라 사전 2개 코스 추천안내 *아리랑파티공연: US\$20 *산방산 유람선 : US\$15. *더마파크 공연 : US\$15 *서커스 공연 : US\$15 식사는 호텔뷔페(조식), 한식뷔페(중식), 고등어구이(석식) 제주 신라 호텔 또는 동급.



◆22일(제주-서울)= 호텔조식후 세계문화유산 성산 일출봉 관광. 전통 제주 초가집 마을 성읍민속마을 관광(지역 특산물 소개). 식사는 호텔뷔페(조식), 토종돼지 양념구이(중식). 제주 기념품 쇼핑후 공항으로 이동.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후원금 신청내역(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비
연\$200 ☐	2010~2011년 \$75 ☐	2010~2011년 \$120 ☐	명함크기(3.5" x 2") \$100 ☐
연\$500 ☐	2011~2012년 \$75 ☐	2011~2012년 \$120 ☐	1/6면 (5" x 4.5") \$200 ☐
연\$1,000 ☐		디자인 명함1/2 \$200 ☐	1/3면 (10" x 4.5") \$400 ☐
기타\$ ☐		디자인명함크기\$500 ☐	1/2면 (10" x 6.7") \$600 ☐
			전면 (10" x13.5") \$1000 ☐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310-515-7888>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Signature:	Date:
Address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모교 사랑은 동창회 참여로 부터...”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근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건축/건설업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호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90
3128-BE Scotts View Orange CA 92668

JND Engineering
박진복(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67

ACCU Construction, Inc.
정동해(농대 74) (8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850 Wilshire Blvd. #30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8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강경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59) (213) 616-136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e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66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승규 공인회계사
최승규 (법대 62) (213) 381-0761
368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8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640
(213) 380-508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경 (상대 77) (213) 427-9595
368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8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595
368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8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정 준 공인회계사
정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39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8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888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은행업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상대 73)
(213) 6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영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태알리

현남채인 (리태알리/상패)
허기환(공대 66) (213) 381-38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8

The Wester Group
윤경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8) 86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a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578-18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리철삼(문리대 64) (213) 623-78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태알리/보약영

세계보약
김광철 (음대 58)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6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a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현경 (과대 65) (714) 724-2580
2800 Ko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6@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811 Hidden 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경민(문리 61)* 706-753-8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상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8) 922-6987
P.O. Box 398 Carmichael CA 95608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8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839-2900
3680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동문 업소록을 재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지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임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재정비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818-225-8411 (Fax)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애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상(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 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스프링/어드웨어/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NARA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앤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Richard Cupp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8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중규 치과그룹
* 권중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흥조 치과
** 오흥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in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필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직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 #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386-8275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제조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 #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8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순두부 213-382-6660
이태로(법대 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우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직/기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안의원/안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MD,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재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공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계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양공

Drive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사 / 동물병원 / 요양업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i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 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공개업 / 재정상담

로알 부동산
엄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종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약원 / 문약약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
수의사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 / 공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운(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또벌)
분리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
표.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762-0812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8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상(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료)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9-08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 / 클리닉 / 장금장서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민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학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 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옥(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국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d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중의 치과
이중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회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애 오아시오

상담 / 생활일기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사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 (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테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장학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흥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 (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 (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 (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욱 정형외과
문대욱(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 (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 (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외사

한국 장외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의료/ 클리닉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

ton WA 98057

WI 위스컨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게시판

O...안혜정(48)씨가 서울공대(금속공

학과) 출신의 부친을 꼭 찾고 싶다고 연

락 해 왔다. 안혜정씨 연락처는

hyeiris@daum.net 전화 010-7204-2777.

♣업소록에 기재되는 동문님의 사
업에 무궁한 번창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동문님들이 원하실 경우
‘동문업소 탐방’ 도 기사 형식으로
게재할 계획입니다.

소개를 원하시는 분은 후원금 신
청란을 사용해서서 보내 주시고, 또
한 업소 이전이나 신업소도 알려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문님의 업소 후원금은
동창회보 발행의 근원입니다. 앞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문님들의
새로운 후원금 액수에 따라 동문님
들의 업소에 대해 크기가 다른 Box
로 장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snuaausa@yahoo.com.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
(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규(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중(상)

차기 회장 : 오인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섭외국장 : 이상대(농)

감 사 : 김재영(농) · 박평일(농)

회보 임원

발 행 인 : 김은중(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편집위원장 : 지인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삼(문) · 이종도
(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원영(문) ·
김종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
섭(NY) · 백 순(WA.DC) · 육길원(CH) · 이청광(LA) · 정홍
택(PA) · 윤상래(MA) · 김창수(NY) · 임승패(SF) · 장석경
(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종민(공 · PA)

위 원=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용남(농 · NY) ·
함은선(음 · WA)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한중철(치대 62입) 562-860-8544(o) bluebirdhan@hotmail.com
	차기회장	서치원(공대 69입) 213-415-1764 charliesuh49@gmail.com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텍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cshin@mmm.com
	차기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샌디에고	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eem@gmail.com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회장	김사직(상대 59입) 224-805-0171 kimsajik@yahoo.com
	차기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mcUSA@gmail.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3박희진(농대 78입)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38-1097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709-2335 kybae8533@gmail.com
	부회장	구명순(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구자동(상대 77입)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인철(사대 59입) 604-228-1684 in-cheol-lee@hotmail.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부회장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Jayon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Working Together Growing Together

Company www.apwks.com

What We Do?
Wholesale Business
Import / Export Business
Fee Warehouse Business

For Online Ordering
Web SOS
nexpart

Click here for
Monthly Specials
APW Web Forum
APW Download Center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 (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매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소비자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베테랑 커플매니저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플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1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아/시/아/나/하/공 탑승시 동문께 드리는혜택

- 1)일반석 승객개도 인천공항 VIP 라운지사용 특권(음식/사위실/인터넷무료제공)
- 2)최저가 항공권에 항공좌석 우선배정 특권(비상구자리등)
- 3)매년 2-3회 정기적으로 한국방문하시는 분들께 최상급 우대서비스 제공
- 4)가족과 동반여행시 가족에게도 상기 혜택 적용

알래스카 크루즈 스페셜 (글레이셔베이 포함)

한국인가이드/선내한식제공/한국가라오케/시애틀시내관광포함

5/15일, 5/29일 특별출발

시카고출발 항공료포함

\$1350

중미의 파라다이스

1/28일출발

환상의 여행 4박5일

Costa Rica

\$1320 항공료포함

한국 여행

아시아나 이용시 공항 리무진버스 탑승권 제공(서울시내)
한양대학병원 종합검진 스페셜 할인혜택 - \$360(남) \$400(여)
저렴한 요금의 한국 휴대폰 대여(분당 35센트)
한국 유명 호텔 30-40% 할인 예약
디럭스 제주2박3일 관광부터 9박10일 전국 일주관광

일본 및 동남아 여행

일본 미야자키 겨울골프 2박3일
일본 구마모토 겨울골프 2박3일
중국관광(북경3박/상해, 황산3박/곤명골프5박)
방콕, 파타야 3박4일관광및 골프여행
마닐라/세부 관광및 골프여행

유럽 여행

미국부터 전문가이드가 동행하는 VIP 투어
2011년 스페인/포르투갈 8일(\$2690) 3/26출발
2011년 북유럽 10일 VIP 투어(\$3950) 7/11일출발
이태리 6박7일 / 유럽하이라이트 10일
동유럽 하이라이트 9일 / 그리스, 터키 11일
북유럽과 러시아6개국 크루즈 11박12일
\$1290+항공료(5/24,6/29,7/17,8/13,9/9출발)

샤프여행사

예약및 문의 : 800-222-3586

1615 Milwaukee Ave .Suite 125, Glenview IL 60025

Email : sharptour@hotmail.com
Homepage : www.sharptours.com

Driving Tomorrow

NEXEN FOR ALL

Powerful Performance & Joyful Value

N8000

N7000

N5000

N3000



Nexen Tire America Inc.

21073 Pathfinder Road Suite 100, Diamond Bar, CA 91765

Tel. 909-923-4011 Fax. 909-923-3991

Toll Free. 800-57-NEXEN / 866-70-NEXEN

E-mail. info@nexentireusa.com



NEXEN TIRE

www.nexentireusa.com